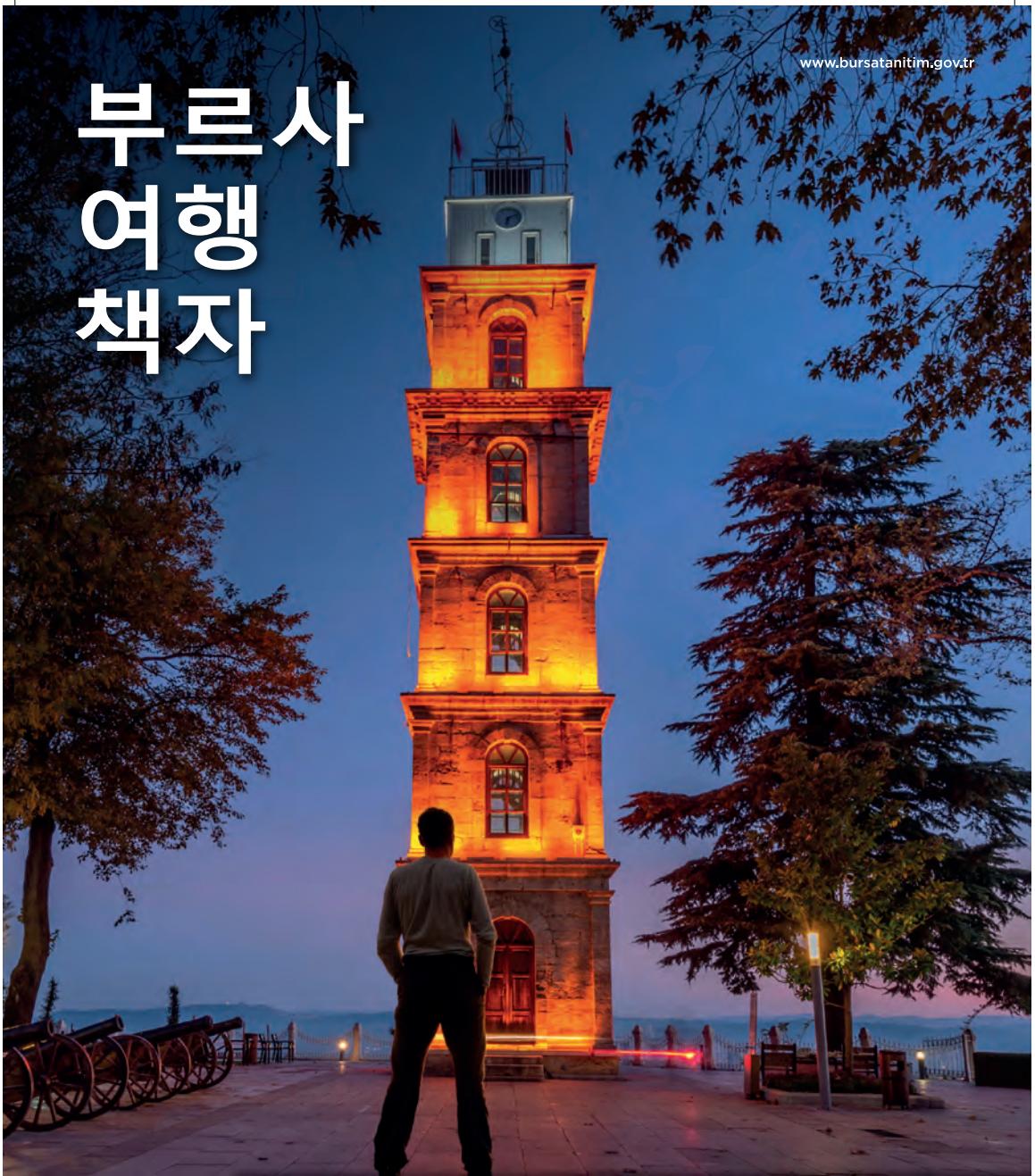


부르사 여행 책자



REPUBLIC OF TÜRKİYE
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



Bursa Eskişehir Bilecik Development Agency

부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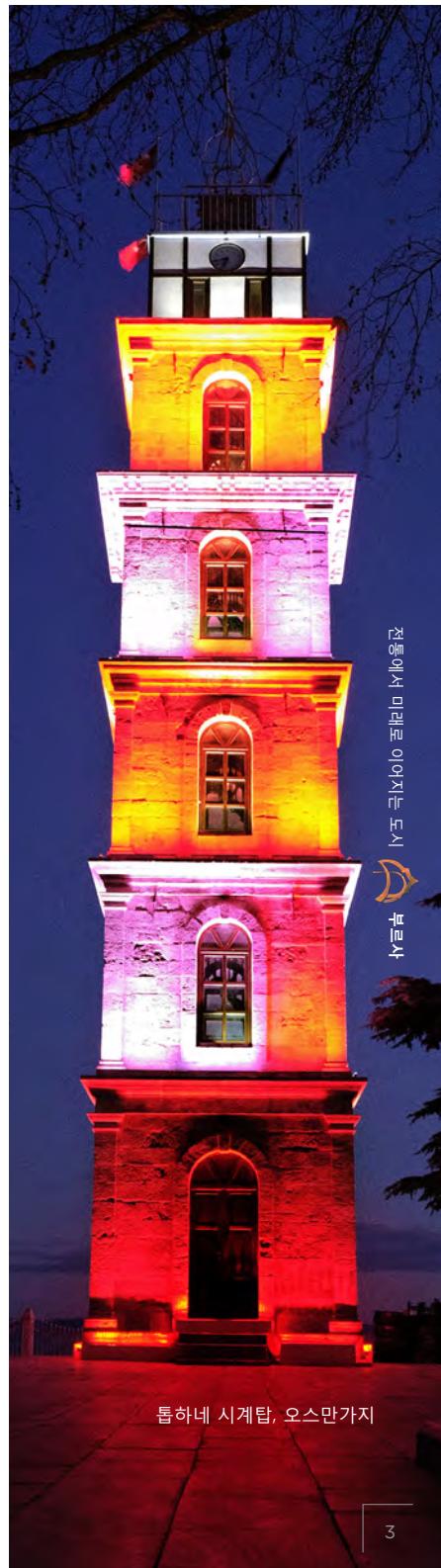
역사, 자연, 미식의 도시

부르사는 골목마다 색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뿌리 깊은 과거와 현재가 얹혀 있는 도시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첫 수도였던 이 유서 깊은 도시는 역사적 여관과 사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말르크족 (Cumalıkızık) 마을이 자리한 곳으로, 과거의 흔적을 오늘날에 만나게 됩니다.

도시를 관광할 때, 톱하네 그리고 오스만 가지와 오르한 가지의 무덤을 방문해보세요. 돌길로 이어진 도심을 걷다 보면 마치 한 시대의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고, 역사적인 여관과 시장 사이를 지날 때에는 과거가 남긴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부르사는 역사만큼 자연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카라자베이 롱고즈 (Karacabey Longozu) 에서부터 이즈니크 호수 (İznik Gölü) 까지 이어지는 자연의 경이로움은 초록과 푸름이 어우러진 진정한 낙원입니다. 하루는 무단야 (Mudanya) 해변에서 바닷바람을 느끼고, 다음 날은 울루다으 (Uludağ) 산 정상에서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지닌 부르사는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움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입을 즐겁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미식입니다! 케밥뿐만 아니라 태하리 피데(Tahinli Pide, 참깨 페이스트 피데) 밤사탕(Kestane şekeri), 켘릭 지역의 올리브, 풍미 깊은 미할리치 치즈 (Mihaliç Peynir 숙성된 양유 치즈) 그리고 복숭아의 고장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음식에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진 문화유산이 담겨 있으며, 한입 한입마다 색다른 맛을 향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전통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도시

부르사

톱하네 시계탑, 오스만가지

부르사: 전통에서 미래로 흐르는 도시

부르사는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첫 수도로서, 제국의 탄생을 증언하는 여관과 사원 그리고 이슬람 복합 단지들을 통해 과거의 흔적을 오늘날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루모스크의 둠, 예실 영묘의 타일, 주말르크족의 좁은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시간에 맞서 남은 유산입니다.

역사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에블리야 첼레비 (Evliya çelebi)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위대한 여행가인 그는 17세기에 성지 순례를 떠나며 부르사를 거쳤고, 자신의 여행기 "setahatâme"에 "물로 이루어진 도시"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추억이 담긴 경로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도보로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르사는 "전통에서 미래로 흐르는 도시"로 불립니다. 여관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유서 깊은 마을에서는 일상과 과거가 어우러져 흐르고 있습니다.

울르다으 산 정상에서 스키를 즐기고, 무단 야 해변에서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해안 마을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또한 온천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웰빙 전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오랜 도시에서 역사의 소리는 선율과 의식을 통해 되살아납니다. 오스만 제국이 탄



울루 모스크

생했던 이 땅에서 세대를 넘어 전해진 칼과 방패춤은 단순한 의식과 축제의 공연이 아닌 과거의 위엄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상징적인 전통입니다. 더불어 튀르키예 군악 행진곡인 메흐테르 (Mehter)의 웅장한 선율은 역사적인 행사에서 울려 퍼지며, 방문객들에게 오스만 제국의 위풍당당한 행진을 느끼게 합니다.

회의와 관광의 새로운 경로: 부르사

뿌리 깊은 역사와 현대적인 면모를 지닌 부르사는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여준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와 기업 세미나, 박람회와 심포지엄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강력한 인프라와 다양한 숙박 시설 그리고 이스탄불과의 전략적 근접성 덕분에 전문 기관들에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목적홀인 메리노스 아타튀르크 회의장 및 문화센터 (Merinos Atatürk Kongre ve Kültür Merkezi)와 박람회장 그리고 울루다으 산의 회의장들은 기술력과 문화적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주말르크족 마을



풍부한 유산의 흔적과 끝없는 발견

부르사의 관광 정체성은 역사, 자연, 문화, 건강 그리고 미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모자이크 작품 같습니다. 여관과 전통 시장을 거닐며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고, 롱고즈 숲 (Longoz Orman) 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수 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사해 온 따뜻한 온천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꼭 맞는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입니다.

부르사는 계절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독보적인 여행지입니다. 장엄한 역사의 유산을 간직한 시장과 여관, 아름다운 푸른 빛으로 물든 숲과 호수 그리고 겨울이면 매력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산과 치유의 온천 까지, 도시 곳곳마다 새로운 탐험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르사를 이야기할 때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상에는 오스만 제국의 미식 전통이 담겨있으며, 지역의 향



연꽃, 카라자베이 롱고주

토 음식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명소들로 부르사는 잊지 못할 여행지가 됩니다.

부르사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 자연, 건강, 문화 그리고 미식이 모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르사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매력적인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안내서 사용 방법

이 책자는 부르사가 지닌 모든 관광 보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의 자취를 따라가고, 자연과 마주하며, 온천에서는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세대 간 전승된 음식을 맛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책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르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지고, 느끼며, 그 리듬을 따라 여행하는 것입니다. 전통 시장에서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울루다으 산 정상에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의 힘이 깃든 온천에서 안정을 찾아보세요. 도시는 과거의 분위기를 현재에도 느낄 수 있는 여관부터 해안 마을의 평온함 그리고 푸른빛을 품은 자연의 경이로움까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책자는 부르사를 여행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르사를 탐험하고 그 순간을 즐기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부르사의 이야기에 빠져보는 것입니다!

- ✓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비잔틴 시대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유산을 탐험해보세요.
- ✓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울루다으 정상에서 이즈니크 호수까지 이어지는 자연 경로를 살펴보세요.
- ✓ 웰니스 관광을 체험하고 싶다면, 수 세기 동안 치유의 힘을 전해온 부르사의 온천수에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 ✓ 그리고 물론, 부르사의 요리 유산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준 요리법을 꼭 경험해보세요.



부르사는 방문할 이유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르사를 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 항공편 이용 시:

부르사와 가장 가까운 공항은 부르사 예니세히르 (Yenişehir) 공항으로, 시내 중심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경유할 경우, 이스탄불 공항은 약 185Km, 사비하 광첸 공항은 약 118Km 거리에 있습니다.



▣ 부르사 시외버스 터미널과 예니세히르 공항 간 정기 노선이 있습니다.

▣ 켄트 메이다느(Kent Meydanı, 광장)와 공항 간 정기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 최신 운행 정보는 BURULA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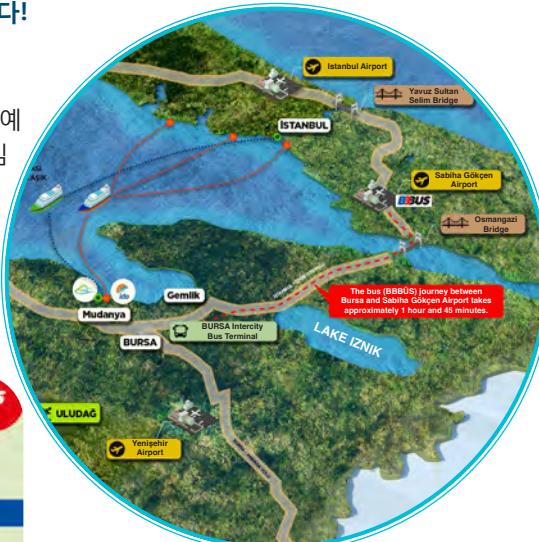
▣ 육로 이용 시: 튀르키예 여러 지역에서 시외 버스 노선을 통해 부르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육로 기준으로 이스탄불에서 약 2-3시간,
▣ 앙카라에서 약 4시간 30분

▣ 이즈미르에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르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후에는 버스, 미니버스(돌무쉬) 또는 택시를 이용해 시내 중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스 노선과 운행 정보는 BURULA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해상편 이용 시: 이스탄불에서 부르사로



전통에서 미리로 이어지는 도시

부르사

가는 가장 빠르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는 해상 이동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BUDO 페리는 무단야 (Mudanya) 부두로, İDO 페리는 귀젤야르 (Güzelyalı) 부두까지 정기적으로 운항합니다.

▣ 해상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무단야(Mudanya) 그리고 귀젤야르 (Güzelyalı) 부두에 도착하면 버스, 미니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해 부르사 도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페리 운항 일정은 계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운행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참조하세요: budo.Burulas.com.tr





トルコ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족문화재단



역사 및 문화유산

어떤 도시들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부르사와 이즈니크 (İznik) 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탄생과 성장의 중심지로 깊은 흔적을 간직한 이 두 도시는 수 세기를

거쳐 현존하는 건축물, 문화유산 그리고 살아 숨 쉬는 듯한 역사적 분위기로 과거의 정신을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원을 방문하든, 옛 여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든, 도시 곳곳에는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즈니크 로마 극장

업, 과학, 예술의 발전을 이룩하며 도시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 최초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도시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부르사의 초기 오스만 시대 건축물들은 역사적인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4대 술탄인 이을드름 바예지드 (Yıldırım Bayezid)에 의해 지어진 울루 모스크 (Ulu Cami)는 웅장한 20개의 돔으로 이루어져 오스만 제국 사원 건축의 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사원 내부의 목공예품과 서예로 장식된 벽면 그리고 사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샤크르반(분수)이 이목을 끕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사원 건축에서 더 나아가 여러 이슬람 복합단지 (Külliye)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사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라디예 복합단지 (Muradiye Külliyesi)는 통치자와 왕조의 무덤이 자리한 공간으로, 오스만 왕조의 역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또한 정교한 타일 장식으로 꾸며진 예실 단지 (Yeşil Külliye)와 예실 영묘 (Yeşil Türbe)는 오스만 예술의 가장 우아한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전통에서 미리보이던지는 도시
부르사



술탄 무라드 2세 영묘, 무라디예 복합단지

부르사: 오스만 제국의 최초의 수도

オスマン制國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부르사는 1326년 오르한 가지 (Orhan Gazi)가 정복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부르사는 군사·행정 중심지로서 상

여관, 사원 그리고 이슬람 복합
단지: 오스만 제국의 유적지

여관, 사원 그리고 이슬람 복합 단지: 오스만 제국의 유적지

부르사의 풍부한 문화 유산은 여관, 사원 그리고 이슬람 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여관은 상업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유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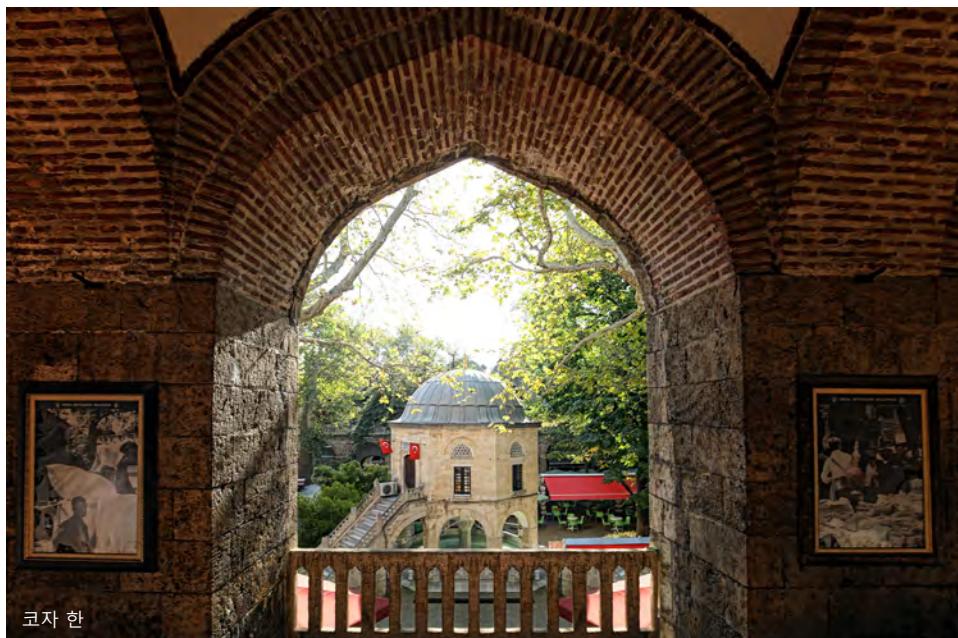
코자 한 (Koza Han) 은 오스만 시대 비단 무역의 중심지로, 부르사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인 여관입니다. 수 세기 동안 상인, 여행자, 수집가들이 모이던 만남의 장소였던 이 건물은 오늘날에도 푸라타너스 그늘에서 취하는 평온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오스만 가지 영묘



발리베이 한



코자 한



역사적인 카팔루 시장, 이네볼

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그 시절의 활기찬 무역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르사의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 (Kapalı Çarşı)는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활발한 상업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역사적인 여관과 베데스텐 (Bedesten 오스만 시대의 지붕이 있는 시장 건물.) 사이에 자리한 이 시장은 실크, 향신료, 수공예품, 골동품 등으로 가득하며, 곳곳마다 과거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쇼핑은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마치 역사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영묘들은 오스만 제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잠들어 있는 중요한 명소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토대였던 이 땅에 묻힌 오스만 가지와 오르한 가지의 영묘는 방문객들에게 뿌리 깊은 역사적 유산을 느끼게 합니다. 이 단지들은 부르사 건축

양식의 핵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오스만 시대 계획도시의 가장 뛰어난 사례로 손꼽힙니다. 모스크, 마드라사 (Medrese 이슬람 율법과 학문을 가르치던 학교), 하맘(터키식 목욕탕), 무료 급식소 등으로 구성된 이을드름 복합단지 (Yıldırım Külliyesi), 휴다벤디가르 복합단지 (Hüdavendigar Külliyesi), 에미르 술탄 복합단지 (Emir Sultan Külliyesi)는 당시 오스만 사회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문명의 교차로, 이즈니크 (İznik)

부르사의 역사 여정은 이즈니크에서 계속됩니다. 고대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 도시는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즈니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들이 열렸던 도시이자 오스만 제





예실 영묘, 첼레비 술탄 메흐메드 영묘



레프케 성문



이즈니크 아야소피아 오르한 모스크

국 시대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즈니크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타일 작품들입니다. 아주 정교한 오스만 타일들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으며, 이스탄불의 여러 사원을 장식하고 있는 타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즈니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축물은 성 소피아 모스크 (Hagia Sophia Camii)입니다. 이 사원은 비잔틴과 오스만 시대의 흔적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즈니크를 둘러싸고 있는 고대 성벽은 인상적인 구조물 중 하나이며, 이즈니크 호숫가의 고대 유적지 또한 과거의 흔적과 자연이 만나 잊지 못할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과거를 따라가고, 현재를 발견하다

부르사와 이즈니크는 역사적 명소들뿐만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분위기로도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탄생한 거리를 걸으면서 정교한 이즈니크 타일을 감상하거나 유서 깊은 여관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여전히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의 장엄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울루다으 스키장



부르사 케이블카

울루다으 (Uludağ): 사계절 즐기는 자연과 모험

튀르키예의 대표 겨울 관광지인 울루다오는 눈 덮인 설산뿐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 사계절 내내 선사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해발 2,543m로 마르마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정상이며, 다

양한 식생을 자랑하는 자연이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휴식처입니다.

울루다으 산은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절마다 다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 스노보드, 스노모빌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봄에는 하이킹, 자전거, 캠핑을 즐기려는 이들이 방문합니다.

울루다으 산의 트레킹 코스는 소나무 숲을 지나 정상까지 이어지며, 이 길에서 아풀로나비와 같은 지역 고유종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여름에도 녹지 않은 만년설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는 날에는 울루다으의 크고 작은 봉우리에 서서 멀리 이스탄불까지 펼쳐지는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카라자베이 롱고즈, 카라자베이

카라자베이 롱고즈 숲 (Karacabey Longoz Ormanları): 물과 초목의 마법 같은 만남

자연의 가장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카라자베이 롱고즈 숲은 부르사의 숨겨진 낙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하늘, 숲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바다와 숲이 맞닿은 이 특별한 자연의 한 구석에서는 푸르른 나무와 덩굴이 어우러진 모험의 길이 펼쳐집니다. 연꽃이 편 물길을 걷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포이라즈(Poyraz)와 달리안 (Daylan) 호수는 두루미와 장어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자, 물새들의 주요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킹, 조류 관찰, 자연 사진 촬영에 적합한 카라자베이 롱고즈 숲은 자연에 폭 빠져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훌륭한 여행지입니다. 경치 감상에 그치지

않고,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으며 수술록 강 (Susurluk Irmağı)의 지류인 코자데레 (Kocadere) 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즈니크 강과 (İznik Gölü) 울루아밧 호수 (Uluabat Gölü): 부르사의 푸른 쉼터

부르사 하면 푸르른 녹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 도시의 푸른 호수들 또한 그에 못지 않은 매력을 자랑합니다.

이즈니크 호수는 아름다운 석양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녔으며, 유구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어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튀르키예의 최대 규모의 민물호수인 이즈니크는 호숫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주변 레스토랑들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호숫가를 걸으며 물에 비친 역사의 그림자를 감상하고, 향토 음



아이바이니 동굴, 닐뤼페르

식을 맛보는 순간, 이즈니크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층 더 특별해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자연의 보석인 울루아밧 호수 (Uluabat Gölü) 는 조류 관찰지이자 생태 서식지로 특히 유명합니다. 유네스코가 '살아있는 호수'로 지정한 이곳은 봄철 이동하는 황새들이 머무는 도래지입니다. 호숫가에 자리한 골야즈 (Gölyazı) 마을은 돌길, 물 위로 뻗은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그리고 전통 어선들이 어우러져 마치 엽서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이즈니크와 울루아밧 호수는 부르사의 가장 특별한 여행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여행: 트레킹, 자전거 그리고 전원 지역 탐방 코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정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는 건 어떠세



울루다으 국립 공원 입구



수뒤센 폭포, 캠리

요? 부르사는 역사적 유산뿐 아니라 특별한 트레킹, 사이클링 코스 그리고 전원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로 가득해 자연 애호가라면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특히 울루다으 (Uludağ), 켈레스 (Keles), 오르하넬리 (Orhaneli) 그리고 이즈니크 (İznik) 주변에는 트레킹과 사이클링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루다으 국립 공원 (Uludağ Milli Parkı) 은 풍부한 식생과 장관을 이루는 경관을 자랑하며, 초보자부터 숙련자 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제공합니다. 산자락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은 여름에는 자연을 느끼며 걷고, 겨울에는 눈 위를 걷기에 이상적입니다.

좀 더 조용한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는 이즈니크의 산들을 추천하며,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하이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이들에게도 부르사에는 다양한 자연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

니다. 이즈니크 호수 주변은 도로용과 산 악용 자전거 모두에게 적합한 경로를 갖추고 있으며, 오르하넬리 (Orhaneli) 와 켈레스 (Keles) 코스는 보다 험준한 지형을 따라 달리며 모험 넘치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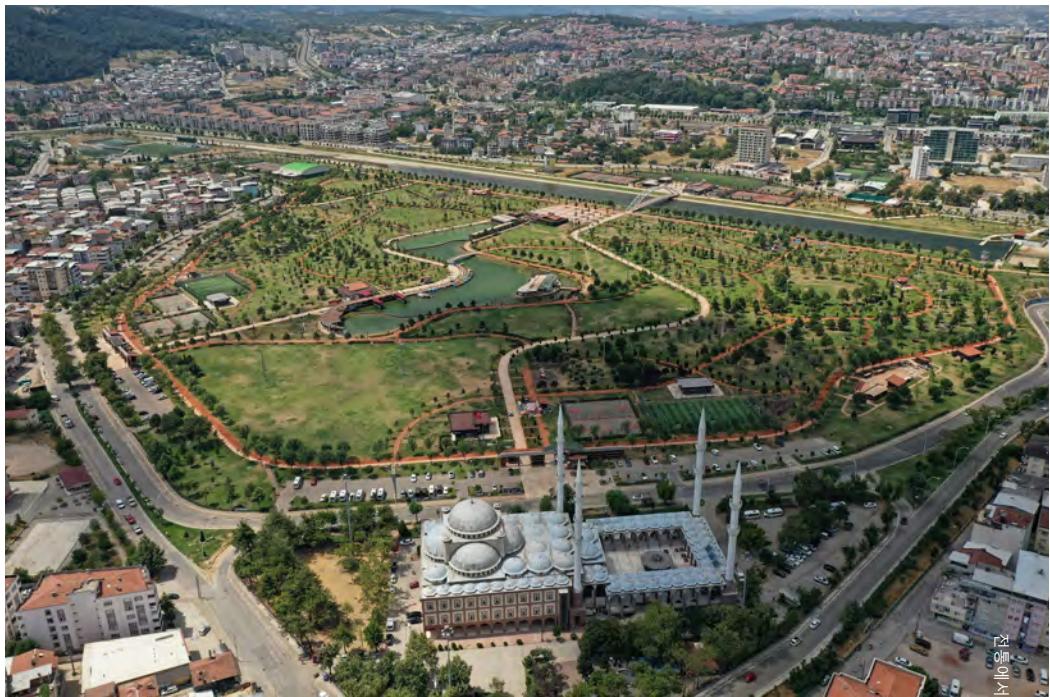
자전거 길을 따라 호숫가를 달리다 보면 자연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시골 마을의 골목길을 지나며 현지의 일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마을 생활 체험에 관심이 있다면, 부르사의 외곽 지역, 특히 주말르크족 (Cumalikizik) 과 미시 (Misi) 마을을 방문해

보세요. 수백 년 된 석조 가옥과 유기농 마을 시장 그리고 친절한 주민들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농촌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트레킹 코스이든, 자전거 탐험이든, 혹은 마을에서의 한가로운 하루를 즐길 때에도... 부르사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끝없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주천 경로



휴다벤디가르 시립 공원

지속 가능한 관광: 미래를 위한 부르사의 유산

부르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여행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역사적 유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 부르사는 친환경 여행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친환경 관광 여행

최근 몇 년간 부르사에서는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는 관광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과 자연 지역 전반에서 폐기물 관리, 탄소 발자국 감소, 에코 투어리즘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루다으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친화적 지역에서는 방문객들이 환경을 훼손하



주말르크족 마을, 이을드름

바카작 도시 전망대, 울르다으



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전거 도로, 전기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등 자연과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도입되었고, 여행객들은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저탄소 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더욱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에코 투어리즘 코스는 자연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탐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줍니다. 그 결과, 부르사는 자연을 지키며 여행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여행

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유기농법과 지역 특산품의 보존

비옥한 토양과 오랜 농업 전통을 자랑하는 부르사는 자연의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생산자를 지원하고 천연 자원을 보호하며 전통 농업 방식을 보존하려는 노력 덕분에 부르사의 생태 및 유기 농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이러한 농업 방식은 특히 이즈니크 (İznik), 오르한 가지 (Orhangazi), 무스타파케말파샤 (Mustafa Kemalpaşa) 등지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되는 올리브, 포도, 밤, 복숭아, 검은 무화과 등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부





르사의 풍부한 미식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유기농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투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르사의 마을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주말르크족 (Cumalızkızık) 과 티릴리예 (Tirilye) 같은 마을 시장에서는 갓 수확한 유기농 채소, 향기로운 수제잼, 냉압착 올리브유 그리고 천연 수제 가공품을 판매합니다. 또한 포도와 올리브 수확 체험, 일부 농장에서 진행하는 전통 생산 워크숍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단순히 '생산'의 개념이 아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만 들어줍니다.

그린 투어리즘과 친환경 숙박

부르사는 '그린 투어리즘'을 기반으로 자연을 해치지 않는 여행을 지향하며 산악 호텔부터 시골의 특색있는 숙소까지, 다양

한 친환경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울루다으와 그 주변의 호텔들은 에너지 절약, 재활용 시스템, 생태 프로젝트 등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통 마을 가옥이나 자연 속 방갈로에서는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르사의 농촌 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장과 지속 가능한 숙박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유기농 농법을 체험하거나 지역 음식을 맛보고, 자연 속을 거닐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르사의 지속 가능한 관광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자연과 지역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여행 방식입니다. 다양한 친환경 숙박 시설과 자연 친화적 관광 코스를 통해 부르사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울루다으 호텔 지구, 오스만가지





겨울 스포츠와 산악 관광: 눈 덮인 울루다으에서 만나는 모험

부르사의 가장 장엄한 자연 보물인 울루다으는 겨울 스포츠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손꼽히는 튀르키예의 대표 여행지입니다. 시내에서 약 35km 떨어진 이 산은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겨울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눈부신 설원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울루다으 스키 리조트: 슬로프부터 호텔까지 완벽한 겨울 휴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분이라면,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와 최신식 스키 리조트를 갖춘 울루다으를 꼭 방문해 보세요.

최신식 리프트 시스템, 스키 강습, 장비 대여 서비스는 물론, 스노보드, 스노모빌 투어, 눈썰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잊지 못할

겨울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급 호텔부터 특색있는 부티크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루다으에서 하루 종일 겨울 스포츠를 즐긴 뒤 슬로프 인근 산악 호텔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전통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에 이르는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즐겨보세요.

부르사 겨울의 또 다른 매력: 스노보딩, 겨울 축제 그리고 캠핑

부르사는 스키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겨울 관광지입니다. 스노보드 트레일, 음악이 가득한 신나는 겨울 축제,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장까지, 이곳에서 보내는 겨울은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스노보딩: 자유를 느껴보세요

눈 위를 자유롭게 미끄러지며 속도를 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스노보딩은 단순한 겨울 스포츠가 아닌 열정 그 자체입니다. 올루다으는 이러한 열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튀르키예 최고의 장소입니다.

올루다으 스키 리조트는 넓은 슬로프와 최적의 눈 상태, 초보자를 위한 안전한 구역, 전문 강사를 갖추고 있어 처음 스노보딩을 접하는 이들에게도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숙련된 스노보더라면 오프피스트 구역이나 자연적으로 빛어진 슬로프에서 모험 가득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루다으 외에도 부르사 주변 고지대에서는 스노보딩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눈이 충분히 내린 시기라면, 도심 인근에서도 짧은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 축제: 눈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향연

부르사에서 겨울은 단순히 눈의 계절이 아니라 음악과 즐거움의 계절입니다.

겨울행사와 대학 축제들은 스키와 스노보드의 즐거움에 다양한 이벤트를 더해 눈 덮인 산봉우리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축제들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연 속 트레킹, 테마별 대회 그리고 겨울 스포츠 행사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눈밭에서 춤추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청량한 산 공기를 만끽하는 순간은 부르사의 겨울 축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순간들입니다.





겨울 캠핑: 눈 아래에서 자연과 단둘이

겨울 캠핑은 자연과 하나 되는 가장 특별한 방법입니다. 눈의 고요함, 별빛 아래 피어오르는 모닥불 그리고 자연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풍경까지...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부르사는 훌륭한 여행지입니다.

울르다으 정상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켈레스 코자야일라 (Keles Kocayayla), 오르하넬리 사다으 협곡 (Orhaneli Sadağı Kanyonu), 뷔육오르한 괴레지크 고원 (Büyükorhan Görecik Yaylası) 에서는 눈으로 뒤덮인 풍경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수가 캠핑을 선호한다면 바라클루 (Baraklı), 다으디비 (Dağdibi), 에리제크 (Eriçek), 다으예니제 (Dağyenice) 호수에서 겨울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이즈니크 호수 (İznik Gölü) 와 카라자베이 롱고즈 (Karacabey Longozu) 는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휴식처입니다.

보다 안전한 숙박을 원한다면 미시 캠핑장 (Misi kamp)이나 카라반 시설, 귀르수 아드레날린 파크 (Gürsu Adrenalin Park)와 같이 자연에 둘러싸인 현대적인 시설들을 추천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가 견디기 힘들더라도 적절한 장비만 준비된다면 모든 순간이 하나의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온천 관광: 부르사의 치유의 샘

부르사는 예로부터 '치유의 도시'로 불려 왔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온천으로 명성을 이어온 이곳은 오늘날에도 부르사를 대표하는 온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르사의 온천 수는 몸의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선사합니다.

체키르게 온천 (Çekirge Kaplıcaları): 과거부터 전해지는 치유

체키르게는 부르사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지구로, 수 세기 동안 치유를 찾아온 이들을 맞이해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즐겨 찾았던 에스키 카플르자 온천 (Eski Kaplıca)과 예니 카플르자 온천 (Yeni Kaplıca)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

거의 흔적이 깃든 온천 경험을 제공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향을 지닌 퀴퀴르틀뤼 유황 온천 (Kükürtlü Kaplıcası)은 특히 피부 질환과 관절 질환 개선에 애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터키식 온천과 현대적인 온천 호텔이 공존하는 체키르게는 전통적인 온천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스파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이상적인 곳입니다.

오일랏 온천 (Oylat Kaplıcaları): 자연 속에서의 재충전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천을 즐기고 싶다면, 오일랏 온천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네꼴 (İnegöl) 지역의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자리한 이곳은 따뜻한 온천수와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온천수는 류머티즘이나 근육



오일랏 동굴, 이네꼴





종마장, 하즈알리 마을, 무스타파케말파사

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일랏 온천의 진정한 매력은 잠시 자연 속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캠핑과 트레킹 그리고 온천의 즐거움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쉼터입니다.

툼불덱 온천 (Tümbüldekkaplıcaları): 고요함과 치유를 한 번에

무스타파케말파샤 지구에 위치한 툼불덱 온천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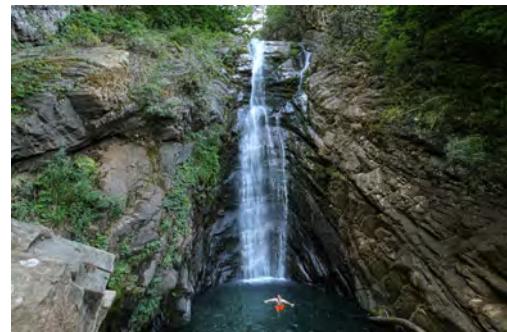
에서 온천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곳의 온천수는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온천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잠시 머물기만 해도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줍니다.

온천 호텔과 스파: 전통의 치유와 현대의 편안함

부르사에서는 유서 깊은 온천과 온천 호텔들을 통해 전통과 현대 웰니스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키르게 지역의 고급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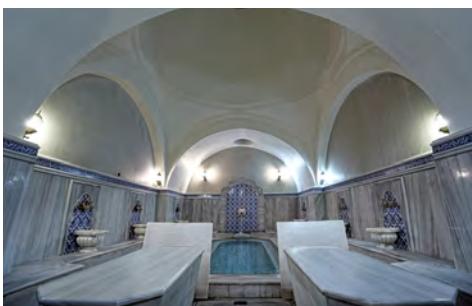
오일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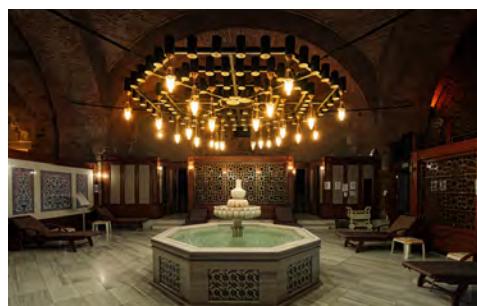
큐레클리 폭포, 이을드름



유서 깊은 카라반사라이 하맘, 오스만가지



유서 깊은 카라반사라이 하맘 여탕, 오스만가지



유서 깊은 카라반사라이 하맘 남탕, 오스만가지

천 호텔들은 오스만 시대의 목욕탕 문화를 현대의 편안함과 결합한 한편, 오일랏과 무스타파케말파샤의 온천 시설들은 자연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이 시설들은 온천의 즐거움은 물론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피부 관리 등 다양한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몸과 마음의 안정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온천 수에 근육이 이완되는 동안, 신비로운 하맘의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흔적이 현재로 되살아납니다.

부르사 의료 관광

부르사는 온천 관광뿐만 아니라 현대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병원들은 정형외과, 물리치료, 시험관 애기 시술, 성형수술, 안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의료 기관들은 해외 방문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르사를 매력적인 의료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합니다.

미식 관광: 식탁 위의 부르사 미식 여행

부르사 케밥



부르사
도시
이란에서
마케팅
한국

オスマン 제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풍미,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된 품질 좋은 농산물 그리고 수 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조리법을 자랑하는 부르사는 미식가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부르사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한 입마다 과거의 흔적과 자연의 풍요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사의 요리: 전설적인 맛

'부르사 케밥' 하면 떠오르는 곳은 단연 부르사입니다. 19세기 이스켄데르 에펜디 (İskender Efendi) 가 선보인 이 특별한 케밥은 버터와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고 요거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

니다. 오늘날에도 부르사 곳곳에는 이 전통을 이어가는 식당들이 있어, 진정한 이스켄데르 케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르사의 대표 요리인 '피델리 코프테 (Pideli Köfte)'는 버터와 토마토 소스로 적신 피데 빵 위에 코프테를 올려 완성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풍미로 부르사 현지 음식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전통적인 요리입니다.

부르사 요리를 이야기할 때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 사탕 (Kestane şekeri) 은 부르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입니다. 산에서 수확한 밤을 진한 설탕 시럽에 줄여 만든 이 간식은 부르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인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집에 돌아갈 때 한 상자씩 선물로 가져가고는 합니다.

지역 농산물: 부르사의 풍요로운 식탁

부르사의 풍부한 음식 문화는 오랜 전통의 요리법뿐 아니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물에서 비롯됩니다. 수 세기 동안 이 땅에서 재배되어 온 재료들은 부르사의 미식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미할리치 치즈 (Mihaliç peyniri)는 부르사를 대표하는 치즈입니다. 주로 카라자베이와 무스타파케말파샤 지역에서 생산되며, 단단한 질감과 강한 풍미로 유명합니다. 아침 식사나 토스트 등의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때로는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작지만 풍미가 뛰어난 켐릭 올리브 (Gemlik zeytini)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올리브입니다. 특유의 오일과 강한 향기는 아침 식탁의 필수 재료입니다. 켐릭과 주변 올리브 농장에서 재배되는 이 올리브는 식사용이나 올리브 오일 생산에 사용됩니다.

부르사 하면 또 다른 별미로 복숭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부르사 복숭아는 터키에서 손꼽히는 최고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여름철 부르사를 방문한다면, 갓 수확한 복숭아를 맛보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미식 여행 코스와 식당 추천

부르사 음식을 탐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미식 여행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각 맛마다 찾

아갈 만한 장소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식당이 아니라 동네와 시장을 탐방하며 직접 맛을 발견하는 경험입니다. 부르사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맛의 자취를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르사 최고의 피델리 쾨프테 (pideli köftesi)를 맛보고 싶다면, 정답은 단연 카이한 시장 (Kayhan Çarşısı)입니다. 이 전통 시장 내 여러 식당에서는 장작불에 구운 피데 위에 쾨프테를 올리고 버터와 토마토 소스를 더해 진정한 풍미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부르사에서 독특한 음식 중 하나인 잔특 (cantık)은 투즈 시장 (Tuz Pazarı)과 아이날르 시장 (Aynalı Çarşı)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다진 고기, 치즈 또는 작게 썬 고기를 올려 구운 이 작고 둥근 피데는 따뜻할 때 가장 맛있습니다.

해산물을 즐기고 싶다면 무단야 해안



이네꼴 쾨프테



무스타파케말파샤 디저트

(Mudanya Sahili) 과 켐릭 해안 (Gemlik Sahili)이 최적입니다. 신선한 생선과 메제 (Meze, 작은 접시에 담긴 전채 요리) 를 맛보며, 바다를 배경으로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이곳만큼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디저트를 좋아한다면, 부르사에서 꼭 방문 해야 할 곳은 단연 밤 사탕 (Kestane Şekeri) 가게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달콤한 디저트는 부르사의 대표 명물이자 최고의 기념품입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주요
식당보다는 포디움파크(Podyum Park)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레
스토랑과 카페가 모여 있어 부르사의 현대
적인 미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
습니다.

부르사는 음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온 장인들의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일부 빵집, 미트볼 가게, 디저트 가게는 3대, 심지어 4대에 걸쳐 변함없는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부의 손맛을 이어받은 손주들이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부르사의 요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수백 년을 지나온 부르사의 맛

이 도시에서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단순히 '맛'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혼적을 따라가며 뿌리 깊은 문화를 느끼는 일입니다. 부르사의 한 식당에서 화덕 앞에 선 손자가 할아버지의 조리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요리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유산이 식탁 위에 올려지는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Pidecioğlu Pide Fırını (1860)

1860년, 하타이 지역에서 부르사로 이주한 Mustafa 가 세운 이 화덕집은 카이한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구워낸 따뜻한 피데를 맛보세요

• Kebapçı İskender (1867)

1867년에 문을 연 이 식당은 바로 되네
르 케밥의 탄생지입니다. 특별한 소스와
정갈한 상차림으로 유명한 부르사 케밥은
이곳에서 여전히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Turan Kadavîf (1890)

1890년부터 투즈 바자르에서 유프카(Yufka)와 카다이프 (kadaiþ)를 만들어 온 이 가게는 디저트를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인기있는 명소입니다.

• Mahkeme Fırını (1892)

1892년, Ali 와 Mehmet 세운 이 빵집은 알트파르막 셀리미예 (Altıparmak Selimiye) 지역에서 전통 빵과 페이스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Besler İnegöl Köftecisi (1893)

1893년, 불가리아에서 이주한 Mustafa Efendi 가 이네꼴에 세운 이 가게는 부르사에서 가장 맛있는 이네꼴 쿠프테로 유명합니다.

• Meşhur Tatlıcı Dondurmacı Ahmet (1920)

1920년, 무스타파 캐말파샤에 문을 연 이 디저트 가게는 특히 치즈 디저트와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합니다.

• Helvacı Cengiz (1920)

1920년, 예니세히르 (Yenişehir)에 문을 연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헬바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 Hacı Baba Izgara (1922)

1922년, Ali Abraş 가 찬즈라르 시장 (Çançılars Çarşısı)에 세운 이 석쇠구이 전문 식당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비법으로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Tarihi Yaşayanlar Börekçisi (1925)

1925년, 몰라랍 (Mollarap) 지역의 빌랄 야샤얀야르 (Bilal Yaşayanlar) 방면에 세운 이 페이스트리 가게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다양한 보렉 (börek)으로 유명합니다.

• Geye Dondurma (1927)

1870년대에 Şerbetçi Halil Ağa로부터 시작된 이 맛의 여정은 1927년 옥출라르 시장 (Okçular Çarşısı)에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며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 Ulus Pastanesi (1928)

1928년에 Hacı Rasim Öztat 가 설립한 이제과점은 부르사의 디저트와 케이크 문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Meşhur Dirancı Helvaları (1930)

1930년, Hüseyin Dirancı 가 예니세히르 (Yenişehir)에 설립한 이 가게는 다양한 종류의 헬바와 디저트로 유명합니다.

• Tavukçuoğlu İşkembe Çorbacısı (1932)

Sabri Tavukçuoğlu 가 1932년 부르사에 연 이 식당은 양고기 내장탕 (İskembe çorbası) 과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 Hasan Tahsin Oğlu Mehmet Helvacı (1933)

1890년 북마케도니아에서 이주한 Hasan Tahsin Helvacı 가 세운 이 가게는 다양한 헬바와 디저트를 선보입니다.

• Hacı Aziz İnegöl Köftecisi (1934)

1934년에 설립된 이곳은 가장 맛있는 이네골식 미트볼을 제공합니다.

• Çiçek Izgara (1963)

1963년에 Hasan Erdihan Hınçalan 이 설립한 이 식당은 장작불에 구운 미트볼로 부르사의 전통적인 그릴 문화를 대표합니다.

• Ülkü Pastanesi (1967)

1967년에 문을 연 Ülkü Pastanesi 디저트 가게는 850제곱미터 크기의 가게에서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부르사의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 Bağdat Hurma Tatlıcısı (1968)

1968년부터 Bağdat 가문이 운영해 온 이 디저트 가게는 특별한 향신료를 섞어 만든 대추야자 모양의 디저트로 유명합니다.

• Sefa İnegöl Köftecisi (1940)

1940년 Hacı Asım Çelik 가 세운 이 식당은 이네골 지역의 다양한 수프와 콩 요리, 밥 그리고 이네골 미트볼을 선보입니다.

부르사의 푸른 바다로 향하는 관문: 바다와 해안 관광

부르사는 흔히 푸른 산과 숲으로 알려졌지만, 마르마라해까지 뻗어 있는 해안선 또한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기에 훌륭합니다. 무단야, 켐릭, 카라자베이 만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해변으로, 고요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봄비는 관광지 대신 평온한 휴식과 탐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 해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대형 휴양지처럼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해가 질 때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해변에 앉아 고요함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 장기 체류에도 적합합니다.

무단야의 해안 풍경, 켐릭의 자연과 맞닿은 만 그리고 카라자베이의 넓고 고요한 해안선은 각각 고유한 매력을 지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박하고 친밀

하며 진정한 해변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안 코스들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기 위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기 위해 전해진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부르사의 해안 지역은 도시를 탐험하고자 하는 여행객에게도, 우연히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도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당일치기 여행, 여름 휴가 계획, 혹은 짧은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바다와 함께 하는 뜻밖의 깊은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해변과 수상 스포츠

여름철 해변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부르사의 해안은 번잡한 인파를 피하면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도심과 가까워 접근이 편리하며, 해안선을 따라 경관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사는 해변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무단야 (Mudanya) 인근의 에쉬켈 (Eşkel),



카라자베이 예니코이 해변(카라자베이 보아즈)



메수디예 (Mesudiye), 쿰야카 (Kumyaka) 등의 해변은 주말이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얕고 잔잔한 바다로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수영을 즐기거나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등 소소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겜릭 (Gemlik) 해안은 조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쿰사즈 (Kumsaz), 날르 (Narli), 겜사즈 (Gemsaz) 등의 해변은 맑은 바다와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평온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물론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페달보트, 카누, 패들보드와 같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포츠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원드서핑이 가능한 시기에는 숙련된 선수들의 모습을 해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라자베이 해협은 일반적인 해변이라기보다 자연 속 휴양지에 가깝습니다. 캠핑이나 해안 산책, 이런 아침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부르사의 해안은 수영뿐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대규모 시설이 없어 화려하진 않지만 그만큼 강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바다를 소박하고 진정성 있게 즐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바로 부르사 해안입니다.

요트 관광과 해안 생활

바다와 맞닿은 부르사의 해안은 육지에서 오는 여행객은 물론, 바다를 건너 찾아온 여행객들에게도 큰 매력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름철 무단야와 캠릭 항구는 요트 관광으로 활기를 띠며, 유서 깊은 거리와 작은 상점, 지역 시장은 해안에 정박한 여행객들에

쿰야카 요트 선착장, 무단야



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단야 해변에서 석양을 감상하고, 바다 전망이 펼쳐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해안 마을 특유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지역은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물론, 휴식 속에서 여유를 부리고 현재를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겜릭은 고요한 해안선과 잔잔한 바다를 간직한 도시로, 바다 여행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작은 찻집 그리고 평온한 분위기는 해상에서 육지로 발길을 옮긴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주변 탐험을 동시에 제공한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여유로운 해안 생활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켐릭은 소박하면서도 인상적인 경험을 약속합니다.

부르사 해안의 요트 정박지는 단순한 환승 지점이 아닙니다. 잠시나마 해안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기회입니다. 무단야 (Mudan-



부르가즈 알튼눔 공공해수욕장, 무단야

ya) 와 켐릭 (Gemlik) 과 같은 해안 도시는 요트 관광에 차분하면서도 실용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해안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그 이상: 부르사의 대안 관광

부르사는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역사 그리고 다채로운 관광 경험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거나, 혹은 틀에 박힌 여행 경로에서 벗어나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에게도 부르사는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축제 일정, 탐험 코스, 수공예 체험, 야외 스포츠 활동까지, 부르사에서는 연중 내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 광장에 열린 시장이, 또 때로는 울루다으 산 속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부르사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삶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문화로 채워진 달력: 축제와 행사

부르사의 문화유산은 박물관과 역사적 건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연중 내내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음악에 관심 있는 예술 애호가라면, 부르사에서의 휴가 중 거리 공연과 마주치거나,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음식 축제를 즐기고, 극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 덕분에 부르사는 단순히 예술을 관람하는 도시를 넘어 예술의 일부가 될 수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부르사 문화를 대표해 온 '국제 부르사 축제' (Uluslararası Bursa Festivali) 는 여름철 필수 행



사입니다. 연극, 무용, 전통 민속 공연, 심포니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쿨튜르파크 야외 극장 (Kültürpark Açıkhava Tiyatrosu) 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역사적 건축물, 공원, 광장은 문화적 만남의 장으로 변모하며, 국내외 예술가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르사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인 카라교즈 (Karagöz) 인형극과 그림자극 축제 (Gölge Oyunu Festivali) 는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매료시키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나톨리아 그림자극의 발생지로 알려진 부르사는 카라교즈 (Karagöz) 와 하지바트 (Hacivat) 가 살았던 도시로서 그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극의 계승에 헌신해 온 쉬나시첼릭 콜 (Şinasi Çelik Kol) 은 이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인간 보물" 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르사의 문화 관광은 대규모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올리브, 복숭아 등 지역 특산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 축제들은 도심을 벗어날수록 더욱 지역적이다.



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티릴리예 (Tirilye) 의 올리브 축제, 케스텔 (Kestel) 의 체리 축제, 이네꼴 (Inegöl)의 복숭아 축제 그리고 부르사 미식 축제(Bursa Gastronomi Festivali) 와 같은 행사는 단순히 지역의 맛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방문객에게 보여줍니다. 축제에서는 가판대에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민속춤을 감상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마을 빵집에서 빵을 굽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부르사를 여행하는 도중 축제를 마주친다면 기꺼이 일정을 변경해 보세요. 여행 계획뿐 아니라 도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자연 속 루트



부르사는 평화로운 자연 산책뿐 아니라 스릴과 모험을 찾는 여행객에게도 다양한 선



택지를 제공합니다.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오프로드 라이딩, 자연 캠핑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비티는 스릴을 즐기는 사람은 물론, 새로운 시각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 까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울루다으 산비탈에서 패러글라이딩



울루다으 산비탈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울루다으 정상에서 출발하는 패러글라이딩은 부르사를 색다른 시야로 탐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름철, 비행하기 적합한 날씨에 즐길 수 있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상공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액티비티입니다.

비행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조종사와 함께하는 텐덤 비행으로 진행되어 처음 도전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륙 지점은 울루다으의 높은 고지대 중 하나이며, 비행시간은 약 20~ 30분 정도입니다. 상공에서는 부르사의 평원, 숲, 호수 그리고 멀리 위치한 마르마라해까지 한눈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리듬: 무스타파 케말파샤 래프팅

물길을 따라 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면, 부르사의 래프팅 코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무스타파케말파샤 지역의 키르마스티 계곡 (Kirmasti Deresi)은 도시를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봄 철 수위가 상승하면 더욱 역동적인 코스로 변하며, 초보자부터 중급자에게 적합한 난이도가 됩니다. 래프팅 투어는 일반적으로 전문 인솔자와 함께 진행되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참가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물살을 따라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래프팅은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을 공유하는 사교 활동이기도 합니다.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시간을 보내다 보면,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생동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가 끝난 뒤에도 마음에 남는 것은, 바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즐거움입니다.

자연 속 오프로드 체험: 오프로드 투어

부르사는 자연과 이어진 도로에서 때로는 바위투성이 길, 진흙탕 그리고 굽곡진 길을 달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프로드 관광은 이러한 모험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특히 이네꼴 (Inegöl) 지역은 오프로드 차량으로 탐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숲길과 험난한 지형, 변화무쌍한 기상 조건에서 즐기는 오프로드 주행은 단순한 운전 경험을 훨씬 넘어섭니다. 가이드와 함께하



전통에서 미리로 이어지는 도시
부르사

는 오프로드 체험은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을 제공합니다. 고지대의 풍경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에는 엔진 소리에 묻히지 않는 자연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운전 실력, 용기,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입니다. 길을 따라 마주친 풍경처럼, 타이어에 남은 진흙 자국조차 추억이 됩니다. 도시를 벗어나면서도 자연과 단절되지 않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프로드는 여행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オスマンガ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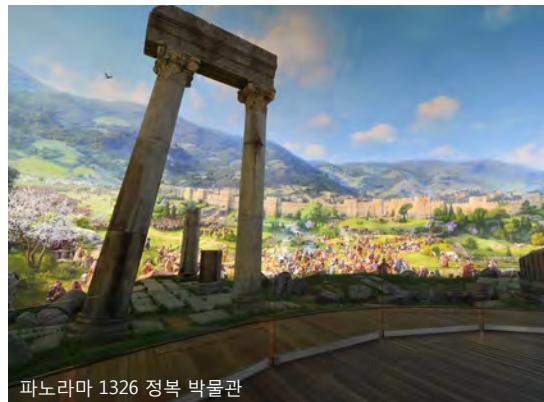
부르사를 단순히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울리고' 싶다면, 시작점은 분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둘 하나하나까지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부르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인 오스만가지(Osmangazi)는 오스만 제국 건국자의 이름을 따왔으며,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리 곳곳에서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스만가지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축물 덕분에 부르사뿐 아니라 튀르키예 전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울르다으 산 자락에서 초원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경관과 여관, 이슬람 단지, 무덤, 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자리해, 방문객들을 시간 여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여관 지구 (Hanlar Bölgesi) 와 술탄 복합단지 (Sultan Külliyesi) 와 같은 역사적 건축물은 오스만가지의 뿌리있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도시 모습도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오스만 가지와 오르한 가지의 영묘는 부르사의 건국 정신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은 방문객을 맞이하며,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은 살아있는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

오스만가지의 중심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울루 모스크 (Ulu Cami), 이올드름 복합단지 (Yıldırım Külliyesi), 휴다벤디가르 복합단지 (Hüdavendigar Külliyesi) 그리고 무라디예 복합단지 (Muradiye Külliyesi) 는 초기 오스만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랜드 바자르 (Kapalı Çarşı), 에미르 한 (Emir Han), 게이베 한 (Geyve Han), 코자 한 (Koca Han)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상업 건물들이 모여 있는 여



파노라마 1326 정복 박물관



피단 한



야드르바르 한



울루마이 오스만 전통 의상 및 장신구 박물관



관 지구는 국내외 방문객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특히 코자 한의 안뜰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은, 마치 역사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オスマン가지에는 부르사 정복 박물관 (Bursa Fetih Müzesi) 과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도 눈 길을 끕니다. 2020년에 개관한 이 대규모 박물관은 체험형 전시와 디지털 내러티브 기법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건국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생생한 체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픽하네 시계탑 (Tophane Saat Kulesi), 술탄의 문 (Sultanat Kapısı), 발리베이 한 (Balibey Han), 파노라마 1326 부르사 정복 박물관 (Panorama 1326 Bursa Fetih Müzesi) 등은 오스만가지의 깊은 역사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울루다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오스만가지는 도시와 산 악 지대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미식

オスマン가지의 역사는 건물들만이 아니라 음식 속에서도 살아 숨 쉽니다. 이 지역의 식당에서는 부르사 케밥, 피델리 쾠프테, 호두 로쿰 등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울루자미 주변 시장의 작은 상점들에서는 수제 타르하나(토마토, 후추, 양파, 허브, 우유 또는 요구르트, 불구르 등을 주재료 한 터키식 수프), 터키식 면요리인 에리슈테 (Erişte), 각종 향신료와 약초 등 다양한 전통 음식을 선보이며 옛 맛의 풍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자



한 2층에서는 숯불에 끓인 터키식 커피를 즐기고, 역사적인 공간에서 한가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르사의 특산품인 밤 사탕 (kestane şeker) 제조업체 중 일부도 오스만가지에 위치해 있어, 달콤한 디저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환상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즐길거리

オスマン가지에서의 하루는 마치 역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아침에는 토픽하네에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낮에는 상점가를 거닐고, 저녁에는 부르사 정복 박물관을 찾아 과거의 문을 열어 역사 속을 살펴보세요.

추억을 사진 속에 담고 싶다면, 사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울루 모스크 주변은 필수 코스입니다. 유서 깊은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현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 수공예품을 구경하는 일 또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オス만가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진정한 감동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켐릭

소개

부르사
이란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
여행사

마르마라해 연안에 있는 켐릭은 올리브 나무 그늘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고요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지닌 항구 도시입니다.

부르사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진 이 해안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 유산이 어우러져 평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켐릭은 수 세기 동안 여러 문명의 발상지로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켐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역사만이 아닙니다. 바다와 맑은 깊은 유대감, 자연이 선사하는 평온함, 그리고 미각을 사로잡는 향토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인 오르한 벨리의 말을 빌리자면: "켐릭을 향하다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조금 단순하지만, 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켐릭은 역사, 자연, 미식과 평온함이 한데 어우러진

해안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요 관광 명소

마르마라 해안에서 가장 맑은 바다를 품은 지역 중 하나인 켐릭은 부르사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여행객에게도 사랑받는 휴양지입니다. 쿰라 (Kumla), 날르(Narlı), 쿰사즈 (Kumsaz), 카라자알리 (Karacaali) 등 해안 마을들은 청정한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그리고 다양한 카페들로 눈길을 끕니다.

켐릭에서 특히 인상적인 순간들은 아침 일찍 바닷가를 거니는 산책과 아름답게 석양이 질 무렵입니다.

이곳에는 튀르키예 공화국 제3대 대통령 젤랄 바야르 (Celal Bayar)의 기념 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우무르베이 (Umurbey) 마을에 위치한 이 묘지는 튀르키예 근현대사의 한 갈피를 보여줍니다. 인근 박물관 단지에서는 젤랄 바야르의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유품과 귀중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수뒤센 폭포 (Sudüşen Şelalesi)를 놓치지 마세요. 켐



릭 북동쪽의 숲길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이 폭포는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전망대와 산책로 그리고 주변의 피크닉 공간은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켐릭 만은 다이버와 수상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날르 (Narlı) 와 카라자알리 (Karacaalı) 해안의 다이빙 포인트는 풍부한 수중 생태계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아마추어부터 전문 다이버까지 모두를 위한 가이드 다이빙 투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은 수중 탐험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켐릭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역사적인 모스크와 분수, 오래된 저택 그리고 옛 그리스식 가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지역의 오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입니다. 바다와 역사가 어우러지고, 고요함과 탐험이 공존하는 켐릭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며, 그 풍경마다 서로 다른 감정이 피어납니다.

지역 특산물과 미식

튀르키예 전역에서 '켐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켐릭 올리브입니다. 특유의 기름 함량, 윤기 나는 검은 껌질 그리고 오래도록 신선함을 유지하는 특성 덕분에



지역을 당당히 대표하게 된 이 올리브는 켐릭의 정체성입니다. 켐릭 내 많은 생산자는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올리브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장이나 상점에서는 올리브뿐 아니라 올리브유, 올리브 페이스트, 비누, 젤임 제품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와 토양은 올리브는 물론 포도와 원예 작물 재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제철에 수확되는 토마토, 고추, 무화과, 포도 등은 지역 주민들의 식탁과 외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줍니다. 이렇게 수확된 농산물은 수제잼, 피클, 말린 식재료 등으로 가공되어 겨울철까지 그 풍미를 이어 줍니다.

켐릭의 음식 문화에서 해산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자리한 생선 요리 전문 식당들은 특히 제철에 잡히는 도미, 농어, 정어리, 전갱이 요리로 유명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다양한 매제, 오징어와 새우 요리, 생선 수프는 바닷가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를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어 줍니다.

쿰라 (Kumla), 날르 (Narlı), 카라자알리 (Karacaalı) 같은 해안 마을에서는 소박한 식당부터 세련된 식당까지 다양한 곳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켐릭의 맛은 단순히 입안의 즐거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의 삶과 노동 그리고 자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알의 올리브에서는 햇살과 인내, 전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생선 요리 한 접시에서는 마르마라 바다의 청량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켐릭의 식문화는 단순한 미각의 체험을 넘은, 하나의 문화적 여정입니다.

뷰육오르한

소개

부르사 서부 올루다으 산기슭에 평화롭게 자리한 뷔육오르한은 도심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고요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뷰육오르한의 기원은 비잔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이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역사보다는 자연과 단순함이 빛어낸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느긋함과 친밀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뷔육오르한은 이상적인 공간이 됩니다. 높은 고도와 풍부한 식생 덕분에 여름철에도 시원한 날씨와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어, 자연 속 관광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추천 관광 명소

뷰육오르한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인 고레직 고원 (Görecik Yaylası) 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흔적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시원한 공기와 맑은 샘물, 초원이 어우러진 이 고원은 특히 여름철 캠핑과 하이킹을 즐기는 여행객 그리고 캐러밴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밤에는 별빛 아래 모닥불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고레직 고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레직 대성당 (Derecik Bazilikası) 은 뷔
육오르한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
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지어
진 이 성당은 주변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강렬한 상징성으로 시선을 사
로잡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명소인 듀윤쥬레르 온천 (Dügündüler İlçesi) 과 주변 관광 시설은 천연 온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온천 관광과 자연 휴양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뷰욕오르한은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마을 광장에는 오래된 분수가 있고, 돌담으로 지어진 집들이 길가에 줄지어 서 있으며, 각 마을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에 방문객들은 단순히 '보는' 여행을 넘어 '느끼는'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뷰육오르한의 음식은 이 지역의 삶처럼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맛이 담겨있습니다.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익혀낸 요리들은 여전히 지역 미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뷔육오르한의 카부르마 (Büyükorhan Kavurması) 는 이 고장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고기 자체의 지방으로 구워 불필요한 첨가물을 최소화해 본연의 맛이 배어나오는 요리로 보통 마을에서 재배된 불구르와 아이란과 함께 제공됩니다. 뜨거운 철판에 담긴 카부르마의 특별한 맛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음식 외에도 지역의 전통 장터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금요일마다 열리는 시장 (Cuma Pazarı) 을 방문해 보세요. 제철 허브, 수제잼, 치즈, 타르하나(채소 요리의 일종), 말린 과일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금요일 소프라(금요일 공동 식사)는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육오르한 금요일 시장 카부르마



릴 수 있는 자리로, 집밥을 맛보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탄두르 오븐에서 피어오르는 빵 냄새, 따뜻한 접시에 담긴 현지 디저트...

이 모든 경험이 육오르한에서의 식사를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즐길 거리

육오르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느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시원한 아침 햇살 아래 괴

괴레직 고원



레직 고원 (Görecik Yaylası) 을 산책하는 순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이 쉬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오후에는 듀윤쥬레르 온천 (Dügüncüler İlçesi) 에서 천연 온천수에 몸을 맡기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어보세요. 고요함과 따뜻함이 만난 이 순간들은 "휴일" 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게 됩니다.

봄과 여름에는 이 지역의 고원 축제와 소규모 지역 축제들은 정이 가득한 마을 생활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을 광장에서 민속춤을 감상하거나, 마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낯선 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여행 일정에는 없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됩니다.

육오르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을드름

일반 정보

율루다으 산 기슭에 자리한 이을드름은 역사, 문화,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부르사의 중심 지역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을드름 바예지드 (Yıldırım Bayezid) 의 이름을 딴 이곳은 부르사 건국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을드름에서는 사회 복합 단지와 영묘, 마을과 박물관 등을 통해 오스만 시대를 따라가면서도 현재의 활기찬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사의 동쪽으로 열려 있는 이 지역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탐험의 여행을 선사하며, 도시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주요 관광 명소

예실 복합 단지 (Yeşil Külliyesi, 녹색 단지) 와 예실 영묘 (Yeşil Türbe, 녹색 무덤) 는 이을드름, 나아가 부르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지입니다. 정교한 장인 정신과 타일 장식 그리고 오스만 건축의 섬세한 미학이 돋보이는 예실 모스크 (Yeşil Cami) 는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이을드름 단지에는 지역 이름의 유래가 된 술탄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주변 거리 곳곳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단지들은 역사적 건축물 그 이상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기억의 공간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말르크족 (Cumhuriyekizik) 마을은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돌길, 돌출창이 달린 목조 가옥, 마을 광장에 자리한 활기찬 시장은 마치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함께 언급되는 크족 마을들 (Kızılköyleri) 역시 오스만 시대의 마을 건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타임 캡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을드름은 현대 삶과 문화가 교차된 매우 활기찬



지역입니다. 알레브 알라틀르 시립 사상예술센터 (Alev Alatlı Şehir Düşünce ve Sanat Merkezi), 바르스 만초 문화센터 (Barış Manço Kültür Merkezi), 한체를리 문화센터 (Hançerli Kültür Merkezleri) 와 인지리를 문화센터 (İncirli Kültür Merkezleri) 는 도시의 주요 예술 문화 거점으로, 다양한 전시회와 강연, 연극, 콘서트가 열리며 이을드름의 역동적인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에미르 술탄 모스크와 영묘 (Emir Sultan Camii ve Türbesi)는 건축미뿐 아니라 신비한 분위기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안뜰에 앉아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풀르자 관광센터 (Kaplıca Turizm Merkezi)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자연 공간입니다. 수족관과 동물원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파쉬 아나돌루 자동차 박물관 (TOFAŞ Anadolu Arabaları Müzesi)은 자동차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과거 자동차 제조부터 현대 자동차 모델에 이르기 까지, 산업과 문화가 함께 발전해 온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묘지 (Fransız Mezarlığı)는 도시의 과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조용하지만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지역 특산물과 미식

이을드름은 부르사 요리의 고전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말르크족 마을에서는 갓 구워낸 바즐라마 (bazlama), 괴즐레메 (gözleme), 수제 젠과 국수 그리고 마을 화덕에서 구운 빵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시장에서는 지역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과일과 채소, 타르하나 (tarhana), 국수, 과일 시럽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전통의 맛과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내어 모든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을드름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균원과 하나 되는 여정입니다. 마을의 가정집에서 차려지는 한 상은 과거의 풍요로움을 오늘날로 이어줍니다.

즐길 거리

케이블카 노선은 이를드름과 올루다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가장 즐거운 이동 방법입니다. 시내

중심에서 산 정상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풍경과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발라반 피크닉 구역 (Balaban Mesire Alanı)은 자연 속에서 홀로 머물거나 피크닉과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울창한 숲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제이닐레르 마을 (Zeyniler Köyü)은 작가 레샤트 누리 권테킨 (Reşat Nuri Güntekin)의 소설 '찰리쿠슈 (Çalikuşu 굴뚝새)'의 배경지로, 문학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자연과 문학적 정취가 어우러진 이 마을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무르베이 실크 생산 및 디자인 센터 (Umurbey İpek Üretim ve Tasarım Merkezi)는 부르사의 전통 실크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작업장과 교육 공간에서는 실크 제품 생산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뮤미네 세레메트 24시 도서관 (Mümine Şeremet uyumayan kütüphanesi)과 '몰라 예간 어린이 대학교 (Molla Yegan Çocuk Üniversitesi)'와 같은 혁신적인 공간을 운영하며, 이 지역에서 문화와 교육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을드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흔적을 따라가는 동시에 현대 박물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무덤의 안뜰이나 사색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미시 마을

닐뤼페르

소개

부르사는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깊은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로 가득한 거리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이 공존하는 닐뤼페르는 과거를 생생하게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 탐방로, 박물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닐뤼페르는 조용한 탐험과 활기찬 하루를 모두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입니다. 도시 생활의 편안함과 시골의 평온함이 공존하는 이 지역은 자연 속 산책, 박물관 탐방, 새로운 맛의 발견을 원하는 이들에게 다채로운 여정을 선사합니다. 닐뤼페르에서의 여정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로 들어가 잠시 멈춰 사색하도록 초대하는 듯합니다.

추천 관광 명소

미시 마을 (Misi Köyü) 은 닐뤼페르에서 문화와 자연이 만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수 백년 된 석조 주택과 자갈길, 개울가 산책로는 역사적 정취를 간직하면서도 느긋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골야즈 (Gölyazı) 는 닐뤼페르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사진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울루아밧 호수가 (Uluabat Gölü) 에 자리한 이 작은 반도는 이른 아침 배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호숫가의 갈대밭 사이를 누비는 투어를 즐길 수 있으며, 석양이 질 무렵에는 아름답게 물든 저녁 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 면모를 구성하는 사진 박물관, 문학 박물관, 보건 박물관 그리고 악기 박물관은 각기 다른 주제로 구성되어 눈길을 끕니다. 각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참여형 전시, 워크숍,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괴뤼클레 이주의 집 (Görükle Mübadele Evi) 은 발칸반도에서 이주해 온 가족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물건과 기록들은 그들의 이주 역사를 생생하게 전하며, 전통 음식과 가보, 기록 자료가 벽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아이바이니 동굴 (Ayvaini Mağarası) 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하수로와 좁은 통로로 이어진 이 동굴은 단순 트레킹이나 본격적인 탐





골야즈

험 모두에게 새로운 발견의 공간이 됩니다.

또한 고고학 공원 (Arkeopark) 에서는 야외에서 이 지역의 고고학적 유산을 체험할 수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휴식처가 됩니다.

지역 음식과 미식

닐뤼페르는 마을 시장과 지역 생산물로 눈길을 끕니다. 미시 (Misi) 마을에서는 수제 챔과 가정식, 천연 비누가 특히 유명하며, 골야즈 (Gölyazı) 는 신선한 생선과 건조 채소칩. 지역 올리브가 특산품입니다.



아크토프락루 인덕 야외 박물관 및 고고학 공원



Dr. Ceyhun Irgil 의료 박물관

즐길 거리

닐뤼페르의 즐길거리는 단지 박물관이나 관광 명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모두 적합한 미시아 (Mysia)

는 긴 트레일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코스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서 깊은 마을, 오래된 분수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바스코이 에르탄 아이체틴 자전거 가게 (Başköy Ertan Ayçetin Bisiklet Evi) 는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자전거 관련 기술 지원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야즈에서는 일출과 함께하는 보트 투어를, 미시에서는 강가에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바이니 동굴은 자연과 하나 되는 색다른 모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닐뤼페르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자연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골야즈 아지즈 판테레이몬 교회
(골야즈 문화의 집)



이즈니크

소개

역사, 자연, 예술이 한 호수
가에서 조화를 이루는 도시
를 상상해 보세요.... 이즈
니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나톨리아 중
심부에 있는 이 특별한 도시는 수천 년의 역
사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 니케아로 알려진
시기부터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에 이르
기까지 켜켜이 쌓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
니다.



이즈니크 도자기

터키 이즈니크 관광 展示会

이즈니크 호수가를 따라 형성된 이 지역은
방문객들에게 과거의 흔적뿐 아니라 자연의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한때 공의회가 열리
고, 화려한 타일이 세상에 색을 더하던 이 땅
은 오늘날에도 그 역사를 사람을 매료시키고,
자연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수공예의
아름다움으로 영감을 전합니다. 풍부한 문
화적 깊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
닌 이즈니크는 부르사의 숨겨진 보물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이즈니크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는 도시
를 둘러싸고 있는 이즈니크 성벽입니다. 약
5km에 걸쳐 이어진 이 성벽은 로마 시대부
터 존재해 왔으며, 장대한 탑과 네 개의 성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니세히르 성문
(Yenişehir Kapısı), 이스탄불 성문 (İstanbul
Kapısı), 레프케 성문 (Lefke Kapısı), 그리고
골 성문 (Göl Kapısı) 모두 도시의 주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동쪽의 레프케 성문은 오늘날에도 웅장
함을 과시하고 있으며, 북쪽의 이스탄불 성문
은 로마 시대 석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성벽 안쪽 도시 중심에는 성 소피아 오르한
모스크 (Hagia Sophia Orhan Camii)가 자
리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로 건축된 이곳은 787년 제2차 공의회가
열린 장소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즈니크를 정복한
이후 모스크로 개조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여
전히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기도 공간으로 남
아있습니다.

이즈니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술
인 타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도자
기 가마 발굴지, 닐뤼페르 하툰 도자기 시장
(Nilüfer Hatun Çini Çarşısı) 그리고 술탈레이
만 파샤 마드라사 (Süleyman Paşa Medre-
sesi) 를 꼭 방문해 보세요. 도자기 가마 발굴
지는 수 세기 동안 이즈니크 타일을 제작하
던 가마터가 발견된 야외 문화 유적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닐뤼페르 하툰 시장에서는 장인
들이 여전히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술탈



레이만 파샤 마드라사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실 모스크 (Yeşil Camii) 는 타일로 장식된 첨탑 덕분에 그 이름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초기 오스만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우아한 장식과 생동감 있는 첨탑으로 방문객들의 사진 속에 아름답게 담깁니다.

고대 로마 극장은 밸굴과 복원을 거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로마 도로, 고대 수로, 오벨리스크 그리고 지하 무덤인 히포제 (Hipoje) 를 포함한 여러 유적들은 도시의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즈니크의 종교 유산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성 네오피토스 성당입니다. 오늘날 이즈니크 호수에 잠긴 이 수중 성당은 공중 탐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지진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성당은 이즈니크의 초기 기독교 역사의 독특한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원로원 궁전 (Senato Sarayı) 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제1차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유적만 남아 있지만, 그 역사적 가치로 인해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부디 엘 카이세리 (Davudi El Kayseri) 와 사르 살툭의 무덤 (Sarı Saltuk Türbeleri), 무라드 1세와 2세의 목욕탕(I. ve II. Murad Hamamları) 그리고 카이으크하네 사회 시설 (Kayıkhane Sosyal Tesisleri) 은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은 이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이즈니크의 전통적인 맛은 여전히 호숫가 주변 식당에서 살아 숨 쉽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에서는 신선한 잉어와 메기 요리가 특히 유명한 별미입니다.

또한 올리브, 올리브 오일, 그리고 포도밭은 이 지역의 생산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즈니크 시장에서는 수제 젤, 피클, 국수, 타르하나와 같은 여러 향토 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이즈니크를 대표하는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맛을 선사합니다. 전통 요리의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풍미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길거리

이즈니크 여행은 때로는 타일 작업대 앞에서 장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고, 때로는 성벽의 그늘 아래를 거닐며 이어집니다.

슐레이만 파샤 마드라사 (Süleyman Paşa Medresesi) 와 타일 시장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타일 채색 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타일을 직접 칠해보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공예의 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거나 석양을 감상하고, 보트 하우스 (Kayıkhanе) 에서 즐길 수 있는 보트 투어는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줍니다. 성 네오피토스 성당 (Aziz Neophytos Bazilikası) 주변을 둘러보는 짧은 보트 투어는 마치 호수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역사 애호가라면 로마 극장, 성벽, 고대 도로, 원로원 궁전 일대를 따라 도보로 탐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야외 코스도 추천합니다.

이즈니크의 모든 곳에서는 각기 다른 시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단야

소개

무단야는 마르마라 해로 이어지는 부르사의 우아한 해안 도시입니다. 바다 내음을 머금은 바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돌길 그리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유서 깊은 건물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평화로운 휴식처이자 풍성한 문화 여행지입니다.

수 세기 동안 여러 문명의 발상지였던 무단야는 오스만 제국과 그리스 건축 양식, 크레타식 요리, 현대적인 해안 산책로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무단야의 거리를 걸으면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역사와 바다가 공존하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요 관광 명소

무단야 중심부에 위치한 휴전 협정 건물 (Mütarke Evi)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공화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체결된 역사적 순간을 증언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1922년 10월 11일, 이곳에서 체결된 무단야 휴전 협정은 튀르키예 독립 전쟁의 외교적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어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세부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을 역사 속으로 안내합니다.

타히르 파샤 저택 (Tahir Paşa Konağı) 석조 학교 (Taş Mektep)는 무단야를 대표하는 민간 건축물로 꼽힙니다. 두 건물 모두 복원 과정을 거쳐 과거의 건축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으며, 오늘 날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판자 항구 (Kapanca Limanı)는 무단야의 옛 항구로, 해안을 따라 정박된 배들과 어부들의 모습 그리고 석양에 물든 금빛 바다가 어우러져 해안 마을의 정취를 풍깁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조금 더 느리게,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흘러갑니다.



무단야 해변



티릴리예



휴전 협정 건물 박물관



쿰야카

그리고 물론 티릴리예 (Tirilye)... 무단야 (Mudanya) 에 속한 이 유서 깊은 마을은 그리스풍 건축물이 늘어선 골목길, 교회, 석조 주택들로 형성되어 있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보입니다. 성 바실리 교회 (Aziz Vasil Kilisesi) 로 알려진 티릴리예 문화 센터는 눈길을 끄는 건축물입니다. 인근의 케메를리 교회 (Kemerli Kilise), 바쉬 멜레클레르 교회 (Baş Melekler Kilisesi), 데레코이 교회 (Dereköy Kilisesi), 아이든프나르 교회 (Aydinpınar Kilisesi) 는 이 지역의 종교적, 문화적 역사를 잇는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무단야 정교회 교회는 현재 우우르 룸주 문화센터 (Uğur Mumcu Kültür Merkezi) 로 활용되며, 종교적 유산과 문화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좋은 사례로 뽑힙니다.

한편, 해변과 석조 주택,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쿰야카 (Kumyaka) 는 티릴리예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무단야의 음식 문화는 바다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에서 시작되지만, 그 진정한 품미는 크레타(그리스) 전통에서 이어져 온 요리들에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요리, 허브 요리, 리코타 치즈를 넣은 빙어 (lorlu börekler)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한 식탁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쿰야카와 티릴리예의 올리브 농장에서 짜낸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무단야의 유산을 상징합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마을에서 만든 챙, 수제 비누, 말린 허브 등 천연 재료로 만든 수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릴리예의 작은 레스토랑들과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생선 가게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가벼운 저녁 식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가장 신선한 생선과 자연 그대로의 메제 (meze) 가 식탁 위에 올려집니다.

즐길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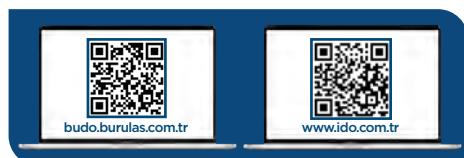
무단야는 거리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품은 도시로,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내야만 그 도시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휴전 기념관에서 티릴리예까지 이어지는 길은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정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는 아침 산책, 카판자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 해변에 앉아 책을 읽으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까지... 무단야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들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부도 (BUDO) 와 이도 (iDO) 폐리 터미널은 무단야를 이스탄불

및 인근 지역과 연결해주며,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쉽게 해안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의 폐리 여행으로도 바닷바람을 느끼며, 유서 깊은 돌담에 기대어 앉아 도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무단야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작은 카페에서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커피를 마시고, 티릴리예의 자갈길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등... 이 모든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무단야에서의 하루를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카라자베이

소개

부르사 서부에 위치한 카라자베이 (Karakabey) 시는 마르마라 해안과 울루아바트 (Uluabat) 호수를 잇는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평온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텁방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태 관광과 문화 관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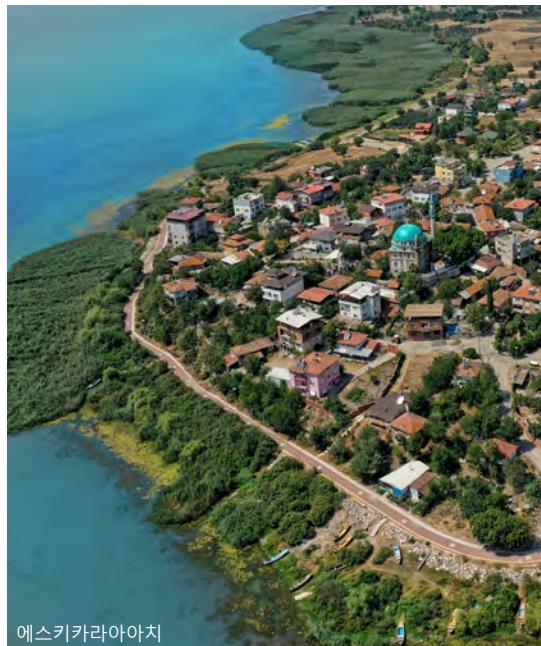
카라자베이는 풍부한 습지 생태계와 전통적인 농업·축산 문화가 함께 발전해 온 지역으로,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정착의 흔적을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보호 구역 관리와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활동을 통해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 이동 시기에는 카라자베이 일대의 하늘이 다양한 철새로 가득 차며, 장엄한 자연의 풍경을 연출합니다. 풍요로운 농촌 경관과 생물 다양성은 카라자베이의 핵심 자산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요 관광 명소

에스키카라아아치 유럽 황새 마을 (Eski-karaağaç Avrupa Leylek Köyü)은 카라자베이를 대표하는 명소로, 울루아바트 호숫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황새 야렌 (Yaren)과 어부 이뎀 (Yaren)의 특별한 우정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황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자리한 이 마을은 단순한 텁조지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에스키카라아아치는 <유럽 황새 마을 협력망 (White Stork Villages)> 의 튼드



에스키카라아아치



Adem 어부와 황새 Yaren

키예 최초이자 유일한 회원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롱고즈 숲(Karacabey Longoz Ormanları)은 튀르키예에서도 드문 범람원 숲 중 하나로, 독특한 식생을 지닌 지역입니다. 수련이 가득한 연못과 숲속 산책로,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자연 체험을 제공합니다.

인근의 오바코루수 곰 보호구역 (Ovakorusu Ayı Barınağı)은 불법 사육장이나 부상으로 구조된 곰들을 보호하고 재활시키는 기관으로,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때



카라자베이 룽고즈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 건축된 으스즈 한(Issız Han)은 역사적 가치와 건축미를 겸비한 유서 깊은 객사입니다. 현재는 복원 과정을 거쳐 문화유산 호텔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역사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카라자베이 국립 종마장 (Karacabey Harası)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오래된 순종 아라비안 경주마 사육지 중 하나로, 승마 산업과 말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광활한 사육지를 둘러보며 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승마와 말 문화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이상적인 체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비옥한 평야와 호수를 품은 카라자베이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주요 농경지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 고추, 멜론, 수박 등 풍부하게 재배되는 과일과 채소는 매년 린든(서양보리수) 축제와 황새 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여 지역 음식 문화의 근간을 보여줍니다.

전통 시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챈, 토마토 페이스트, 타르하나(tarhana, 곡물과 발효유를 섞어 건조한 식재료), 말린 과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수 정성스럽게 만든 이들 제품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올루아바트 호수 일대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전통 어업은 신선한 민물고기를 공급하며, 카라자베이의 식문화의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

사진을 좋아한다면 황새 둑지, 호숫가 풍경,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에스키카라아치의 특별한 마을 풍경을 놓치지 마세요.

봄과 여름철에 열리는 유성우 관측 행사 또한 카라자베이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빛 공해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올려다보는 밤하늘은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줍니다.

카라자베이 국립 종마장에서 말들과 교감하고 자연 속을 걸으며 여유를 만끽하거나, 지역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카라자베이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흐르지만, 그 속의 모든 순간은 매 순간이 풍요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우츠투 폭포

무스타파케말파샤

소개

율루아바트 호수의 남쪽,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넓은 평야 위에 무스타파케말파샤 (Mustafakemalpaşa) 자치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첫 해, 국부의 이름을 따 명명된 이 지역은 오랜 제조업 전통과 치유의 온천수,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활기찬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르사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무스타파케말파샤에서는 광활한 숲과 고요한 호수, 장엄한 폭포 등 다양한 자연·문화유산 속에서 특별한 휴식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

무스타파케말파샤를 대표하는 자연 명소 중 하나는 수우츠투 폭포 (Suuçtu Şelalesi)입니다. 봄과 가을철에 수량이 풍부해지며 만들 어내는 장관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

다. 주변에는 산책로와 피크닉 공간, 전망대가 잘 정비되어 있어 하루 종일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명소인 카바타쉬 폭포 (Kabataş Şelalesi)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숲속의 아늑한 쉼터 같은 분위기로 한층 더 가까운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스타파케말파샤의 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도락 전망대 (Dorak Seyir Tepesi)에서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시야 속에서 맞이하는 일출과 일몰은 이 지역의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랑받아온 텀불데크 온천 (Tümbüldekk Kaplıcaları)은 현지인뿐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휴양 명소입니다. 류머티즘이나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온천수는 피로를 풀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무라디예사르느츠 공공 복합시설 (Muradiyesarnıç Sosyal Tesisleri)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당일치기



휴양이나 산책을 즐기기 좋은 장소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깊은 파샤라르 유적지(Paşalar Kazı Alanı)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보존되고 있는 의미 깊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무스타파케말파샤가 단순히 자연의 도시를 넘어,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무스타파케말파샤의 이름을 튀르키예 전역에 알린 대표적인 별미는 바로 무스타파케말파샤 디저트 (Mustafakemalpaşa Tatlısı)입니다. 치즈 유청으로 만들어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이 전통 과자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신다면 현지에서 갓 구워낸 따뜻한 디저트를 향긋한 차와 함께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물소 젖으로 만든 다양한 유제품 역시 전통 목축업이 만들어 낸 무스타파케말파샤의 자랑입니다. 카라오울란 버팔로 하우스 (Karaoğlan Manda Evi)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버터, 요거트, 치즈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통 시장에서는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 수제잼, 타르하나, 각종 건조 식품 등 다양한 로컬 특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즐길 거리

무스타파케말파샤에서는 자연 속을 거니는 일이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수우츠투 폭포 (Suuçtu Şelalesi) 주변의 산책로는 맑은 공기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카바타쉬 (Kabataş) 와 쿠세호로즈(Kösehoroz) 폭포는 아름다운 풍경사진을 촬영하거나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숲속 탐방, 피크닉, 트레킹



무스타파케말파샤 디저트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텁불데크 온천 (Tümbüldək Kaplıcaları)에서 따뜻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겨보세요.

무스타파케말파샤의 휴양소와 전망대는 비교적 한적해 조용한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과 자연에 깊이 파묻힌 테라스는 도시에서 탈출해 조용한 일탈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연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무스타파케말파샤에서 마음 깊이 남는 특별한 경험을 해 보세요.



오르한가지

소개

마르마라해에 마주한 해안과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언덕, 그리고 온천이 함께 어우러진 오르한가지 (Orhangazi) 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용하면서도 다채로운 여행지입니다. 부르사 북동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캠핑만과 인접해 있어 비옥한 토지와 시원한 해풍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오랜 전통의 농업과 지역 특산품, 그리고 온천 관광의 잠재력으로 주목받는 오르한가지는 여유로운 일상 여행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오르한가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명소는 패러글라이딩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궤레 산 (Gürle Dağı) 입니다. 이곳은 아마추어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활공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울루아바트 호수에서 마르마라해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궤레 마을 (Gürle Köyü) 은 산악 스포츠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건축문화재로도 유명합니다. 궤레 모스크 (Gürle Camii) 와 궤레 목욕탕 (Gürle Hamamı) 에서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통 석조 기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벽에 고스란히 스며든 오랜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푸르른 호수 같은 케라멧 온천 (Keramet İlçesi) 은 자연 속에서 노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오르한가지의 대표 특산품은 두말 할것 없이 올리브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 수출품으로, 아침 식탁에 오르는 검은 올리브 한 알만으로도 이 땅의 풍요로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게델렉 피클 (Gedelek Turşusu) 입니다. (*turşu: 튀르키예 전통 피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맛은 부르사뿐 아니라 튀르키예 전역에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풍미를 느끼고 싶다면, 현지 게델렉 마을 시장을 방문해 수제 피클을 직접 구매해 보세요. 오르한가지의 또 다른 별미인 마흐무디예 딸기 (Mahmudiye Çileği) 는 작지만 향이 강하고



게델렉 피클



마흐무디예 딸기

단맛이 깊어 제철에 만든 쟈으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달콤한 향과 진한 맛 덕분에 방문객들이 하나씩 꼭 사 가는 인기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훈 하툰 디저트 (Malhun Hatun Tatlısı)

오는 오스만가지의 요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 과자입니다. 오스만 제국 초대 왕비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흥미로운 디저트는 시럽과 우유가 어우러져 오르한가지의 역사와 전통을 한입에 담고 있습니다.



말훈 하툰 디저트

(Keramet İlçesi)에서 온천 욕으로 쉬어가는 하루를 보내세요. 자연 한가운데서 즐기는 따뜻한 노천 온천욕은 일상의 피로를 녹여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게델렉 마을 (Gedelek

Köyü)에서는 지역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 피클 만들기 체험, 마을 시장 구경, 올리브 밭 산책 등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체험 코스가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르한가지는 조용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도시입니다. 푸른 자연 속 풍경과 따뜻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 그리고 한 그릇의 전통 피클 속에서 오르한가지만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즐길 거리

오르한가지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해볼 일은 단연 자연 탐방입니다. 궐레 산 (Gürle Dağı)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며 새의 시선으로 마을과 들판을 내려다보거나, 케라멧 온천



케라멧 온천

오일랏 온천



이네골

소개

オスマン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부한 역사와 비옥한 평야로 둘러싸인 이네골은 부르사 시내에서 약 45km 거리에 위치하며, 산업, 문화유산, 온천, 자연 경관, 그리고 독특한 요리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이네골의 역사는 비잔틴과 오스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전통 건물들을 통해 그 깊은 과거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オスマン 시대 여행 작가 에블리야 첼레비 (Evliya Çelebi)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이네골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주요 관광 명소

이네골의 특징 중 하나는 자연과 문화가 밀접하게 얹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명소 중 하나는 오일랏 동굴 (Oylat Mağarası)입니다. 종유석과 석순, 석주로 가득한 이 동굴은 튜르키예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로, 내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비쳐오는 햇살이 마치 한 편의 공연과도 같은 매혹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동굴 인근에는 오일랏 폭포 (Oylat Selalesi)가 위치해 있어, 동굴 탐방 후 상쾌

오일랏 폭포 에코 투어리즘 코스



한 자연의 풍경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또한, 수세기 동안 '치유의 물'로 알려진 오일랏 온천 (Oylat kaplıca)은 류머티즘,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주변에는 소규모 호텔과 펜션이 있어 며칠간 머물며 휴식을 취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방문객에게는 투르굿 알프 영묘 (Turgut Alp Türbesi)가 주요 명소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시조, 오스만 가지의 전우 중 한 명인 투르굿 알프가 묻힌 이곳은 이네골이 오스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임을 보여줍니다.

전통문화 체험을 원한다면 이네골 시립 박물관 (İnegöl Kent Müzesi) 방문을 추천합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이네골의 역사와 전통, 공예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의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깊이 이해할 수



오일랏 동굴



제라흐 콩요리



이네꼴 코프테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이네꼴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하면 단연 이네꼴 코프테(Inegöl Köfte)입니다. 독특한 모양과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고기와 양고기를 섞어 만든 교유의 레시피는 오랜 시간 그 정체성을 지켜 온 지역의 상징으로,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스트로 이네꼴'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이 지역의 요리 문화는 코프테뿐만 아니라,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식탁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네꼴에서는 음식이 여전히 '가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 레시피가 그대로 이어져 온 요리 문화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부하고 맛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즐길 거리

이네꼴에서는 연중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평화로운 자연 속 산책이나 오일라트 계곡의 다양한 식물 군락 탐험이 추천됩니다.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조류 관찰, 식물 탐방, 가이드와 함께하는 트레킹 투어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방문객을 위해서는 자연 스포츠 관광센터에서 제공하는 산악 자전거 코스, 오리엔티어링(*도구 없이 지도와 나침반만을 이용하여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는 야외 스포츠, 참고: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루트, 계절별 캠핑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진행되는 자연 속 캠핑, 스포츠 경기, 야외 운동 코스 등은 활동적인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 체험 활동도 풍부합니다. 전통 요리 수업, 공예 강좌, 전통시장 탐방 등을 통해 이네꼴의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 깊은 빵집에서 전통 빵을 구워보거나, 이네꼴 코프테 장인에게 레시피를 배우고, 제철 농산물 수확에 참여하는 등 지역 문화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겨울철에는 오일랏 주변이 고요해지며 온천 관광이 활기를 띵게 됩니다. 온천에서 보내는 며칠은 몸과 마음을 모두 새롭게 해줍니다.

이네꼴에서의 모든 활동은 자연과, 그리고 전원 생활의 리듬과 맞닿아 있습니다.

케스텔

소개

울루다으 산기슭에 자리한 케스텔 (Kestel)은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부르사 시내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숲과 폭포, 산간 마을 덕분에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굉음을 내며 흐르는 폭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수백 년 된 플라터너스 그늘 아래에서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케스텔은 자연과 일상이 어우러진 공간일 뿐 아니라, 오스만 제국 초기 정착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자연 탐방 코스와 문화 명소가 조화를 이루는 케스텔은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을 선사하는 여행지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케스텔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는 사이타바트 폭포 (Saitabat Şelalesi)입니다. 울루다으 산의 샘물에서 시작된 이 폭포는 특히 여름 철 더위를 식히려는 방문객으로 늘 활기를 띕니다. 폭포 주변에는 피크닉 공간과 송어 요리 전문 레스토랑,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어 물소리와 새소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

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폭포인 쾨렉리데레 폭포 (Küreklidere Şelalesi)는 숲속의 숨겨진 명소로 더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사진 촬영, 명상 또는 느긋한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방문객에게는 날르데레 협곡 (Narlıdere Kanyonu)이 추천됩니다. 산 자락을 따라 펼쳐진 바위와 시원한 개울을 끼고 걷는 트레킹 코스는 자연의 진면모를 체험할 수 있으며, 가이드 투어나 지프 사파리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케스텔 성 (Kestel Kalesi)은 부르사의 과거를 담은 역사적 유적입니다. 오스만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성은 전투의 흔적과 함께 당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종교적 명소로는 게이클리 바바 영묘 (Geçikli Baba Türbesi)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건국 시기에 큰 공적을 세운 성인의 묘소로, 여러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한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방문객이 찾는 장소입니다.

케스텔 성



사이타바트 폭포>사이타밧 폭포



악수 마을 박물관



영묘 주변의 풍성한 초목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또한 바바 술탄 플라터너스 (Baba Sultan Çınarı) 는 6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 온 거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나무가 아닌 살아 있는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케스텔의 산간 마을들은 비옥한 땅에서 직접 길러온 전통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을 공용 화덕에서 구워낸 빵, 호두 패스트리, 수제 파스타 (eriste) 과 타르하나는 전통 시장에서 특유의 향기로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과수원은 원산지와 가장 가까운 제철 자두, 배, 체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갓 딴 과일들은 수제 잼이나 과일 젤리 (pestil)로 가공됩니다. 나무에서 갓 딴 과일의 신선함을 아는 미식가들에게 케스텔은 가장 순수한 자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악수(Aksu) 마을에 위치한 민속 박물관 (Köy Müzesi) 은 단순히 지역 생산 문화를

사이타밧 폭포>플라터너스 숲



관람하는 것을 넘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엿보는 체험이 됩니다.

즐길거리

케스텔에서는 자연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프 사파리, 협곡 트레킹, 폭포 탐방 등 다양한 코스에서 역동적인 모험을 즐겨 보세요. 날르데레 (Narlıdere) 주변은 숙련된 모험가부터 트레킹 초심자까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보다 차분한 시간을 원한다면 바바 술탄 플라터너스 (Baba Sultan Çınarı) 의 그늘 아래에서 독서를 하거나, 골바쉬 호수 (Gölbaşı Gölü) 주변에서 고요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또한 두다클르(Dudaklı)의 나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의 향기와 함께 평온한 일상의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스텔에서는 계절마다 마을 축제, 자연 투어, 전통 공예 클래스 등 다채로운 체험이 열립니다. 짧은 주말 여행이든, 며칠간 머무는 여유로운 일정이든 케스텔은 언제나 자연 속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켈레스

소개

울루다으 산 남쪽 사면, 소나무 숲 사이로 아늑하게 펼쳐진 고원 마을 켈레스. 부르사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들리는 이곳에서, 서늘한 날씨와 조용하지만 고유한 매력을 지닌 켈레스 시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켈레스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오면서 맑은 공기와 고원, 저수지와 숲 속 산책로가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에 더해 온천, 지역 축제, 특산품 시장 등 풍부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켈레스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코자야일라 (Kocayayla) 고원은 부르사는 물론, 튀르키예 전역에서도 널리 알려진 명소입니다. 푸른 초원과 넓은 캠핑장, 잘 정비된 산책로가 어우러져 매년 수많은 자연 애호가들이 찾아오며, 여름철에 열리는 코자야일라 축제 (Keles Kocayayla Festivali)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고원 곳곳에서 튀르키예 전통 놀이와 음악 공연,



켈레메치 마을

지역 특산 음식 등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은 청정한 자연 속에서 흥겨운 축제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코자야일라 관광 시설은 캠핑, 캐리밴, 하이킹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원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자야일라 고원 인근에는 괴외즈 (Gököz) 저수지와 바라클르 (Baraklı)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어 휴식, 캠핑, 혹은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비친 산의 풍경과 새소리를 들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왜 켈레스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인지 자연스레 느낄 수 있습니다.



코자야일라 관광 시설



역사와 전통의 흔적을 찾고 싶다면 하이다르 온천 (Haydar İlçesi) 을 추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현지인들에게 사랑받아 온 이 아담한 천연 온천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늑한 치유의 기운이 가득한 휴식처입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켈레스는 비옥한 토양 덕분에 과일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지역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특산물은 켈레스 체리로, 여름이 되면 마을 곳곳에 특별한 색과 향, 그리고 달콤한 맛을 더합니다. 수확철에 과수원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신선한 체리를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원에서 짠 신선한 우유로 만든 다양한 치즈, 향긋한 허브를 넣어 구워내는 괴즐레메 (gözleme, 속이 들어간 부침개), 그리고 마을 화덕에서 갓 구운 전통 빵은 켈레스의 음식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별미입니다. 장작 화덕에 지긋이 요리한 켈레스 스튜와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염소고기 케밥은 켈레스의 가장 진솔한 전통 요리로 꼽힙니다. 매주 열리는 특산물 시장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즐길 거리

켈레스는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자야일라 고원과

괴죠즈 자연 공원(괴죠즈 저수지)



그 주변 지역은 캠핑, 트레킹, 자전거 코스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특히 이런 아침에는 자연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와 고요한 감동을 전합니다.

수위가 알맞아지는 기간이 되면, 켈레스 시를 가로지르는 강물과 함께하는 켈레스 래프팅 코스가 자연 속 소박한 모험을 찾는 이들에게 짜릿하고 역동적인 체험을 제공합니다.

바라클르와 괴죠즈 저수지에서는 캠핑을 즐기며 별빛 아래 모닥불 곁에서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고, 하루의 끝에는 하이다르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켈레스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마주하는 소박하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체리나무 그늘 아래에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르만족

소개

부르사 남서부의 고요한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 하르만족 (Harmancık) 은 아담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부르사 시내에서 약 100km 떨어진 이 자연 친화적인 지역은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단순하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입니다. 넓게 펼쳐진 숲과 저수지, 산책로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철학을 바탕으로 조성된 하르만족의 관광 시설은 특별한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더 느리고, 더 조용하며, 더 진솔합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가, 쇼핑몰 대신 마을 장터와 숲길, 그리고 저수지가 어우러져 자연의 리듬 속으로 이끕니다. 하르만족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는 여행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지이며, 소박함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관광 트렌드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점이 이 마을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하르만족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의 가까운 거리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명소인 카라자 저수지 (Karaca Göleti) 는 산책로와 피크닉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간 대마다 서로 다른 빛깔을 보여줍니다. 새벽의 안개, 정오의 햇살, 저녁 노을빛으로 물드는 하늘까지 카라자 저수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이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인 에코 투어리즘 시설은 지역 전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하르만족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양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과 천연 재료를 사용한 객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레스토랑 등 이곳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체험하게 합니다.

자유로운 여행을 선호한다면 캐러밴 (트레일러) 캠핑장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튀르키예 전역에서 캐러밴 관광이 인기를 얻자, 하르만족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곳은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전기, 수도, 폐기물 처리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어, 자연과 하나 되는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 풍경과 더불어 하르만족의 돌집 마을과



숲 속 오솔길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간직한 마을 분위기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원 생활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자연 그대로의 재료와 전통 아나톨리아 요리 법으로 만든 하르만족의 요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인 하르만족 코프테(미트볼)는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내며,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별미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전통 빵과 구운 고추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유로 만든 요리, 수제 요거트, 산에서 채

취한 허브 등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이 가득하며 잼, 타르하나, 페크메즈 (pekmmez, 포도 또는 석류로 만든 시럽)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르만족에서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깊은 맛 속에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느껴보세요.

즐길 거리

하르만족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정해진 일정에 얹매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카라자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고, 해먹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사진 촬영, 명상 혹은 그저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일상이야 말로 하르만족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곳에서는 에코 투어리즘 시설 덕분에 숙박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체험이 되며, 자연과 밀접하게 어우러진 며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마음을 비우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캐러밴 여행을 즐길 계획이 있다면, 하르만족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휴식처가 되어 줄 것입니다. 캐러밴 캠핑장에서 머물며 숲 속 산책을 즐기거나 마을을 거닐며 전원생활의 소박한 매력을 체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을 하르만족 코프테 식당 (Harmancık Köfte Evi)의 전통 요리들로 맛있게 마무리해 보세요.

사다으 협곡



오르하넬리

소개



터키 이스탄불에서 미라로 휴양지로

울루다으 산 남쪽 사면에 자리한 오르하넬리 (Orhaneli)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용한 휴식처로, 부르사 중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악 마을입니다. 오르하넬리에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원, 풍부한 녹지 환경이 어우러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전원 생활의 활기가 살아 있는 오르하넬리는 자연 산책, 캠핑, 지역 축제와 행사 등 계절마다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매 순간이 자연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집니다.

오르하넬리 코자수 래프팅



주요 관광 명소

이 지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연 경관은 단연 사다으 협곡 (Sadağı Kanyonu)입니다. 웅장한 절벽과 폭포, 그리고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어우러져 트레킹 애호가와 사진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사이로 이어진 오솔길을 걷다 보면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방문객을 자연의 품으로 안내합니다.

카라교즈 휴양지 (Karagöz Mesire Alanı)는 짧은 여행이나 당일 방문에 적합한 명소로,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평화로운 휴식처입니다.

또한 벤제 자연생활 센터 (Bence Doğal Yaşam Tesisi) 는 자연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로, 캠핑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휴가를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오르하넬리는 자연미뿐 아니라 깊은 역사적 유산을 지닌 지역입니다. 매년 열리는 오르하넬리 카라교즈 축제는 오스만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그림자극 『카라교즈(Karagöz)』의 명맥을 계승하는 행사로, 일주일 동안 다채로운 공연과 지역 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르하넬리는 이 전통 예술의 발원지로서 더욱 특별함을 가집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오르하넬리의 풍요로움은 매주 열리는 베이제 시장 (Beyce Pazarı)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곳에서는 오르하넬리 여성 협동조합이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생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을 여성들이 직접 만든 수제 괴즐레메 (gözleme) 와 타르하나 (tarhana), 신선한 허브, 말린 과일, 수공예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채취한 백리향, 쐐기풀, 산딸기 등 지역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담은 진미들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르하넬리의 요리는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입니다. 식재료의 대부분이 지역

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 들어지며, 전통적인 조리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열리는 지역 축제에서는 밀로 만든 전통 죽 요리 케슈케크 (keşkek) 와 속을 채워 철판에 구워내는 사지 보렉 (sac böreği) 등, 오르하넬리의 정취를 담은 향토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즐길 거리

오르하넬리의 사다으 협곡 (Sadağı Kanyonu)은 암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강물과 장대한 협곡의 풍경이 어우러져, 트레킹과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르하넬리 래프팅은 특히 봄철, 눈이 녹아 불어난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체험으로, 짧지만 짜릿한 급류를 타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코스는 지역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며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협곡 주변의 자연 체험 시설과 캠핑장은 캠퍼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별빛 가득한 아래 평화로운 하룻밤은 오랫동안 여유를 남기는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고요한 휴식과 푸르른 활력, 오르하넬리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진정한 자연 체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베이제 자연 생활 시설 봉갈로



예니셰히르

소개

부르사 동쪽에 위치한 예니셰히르 (Yenişehir)는 오스만 제국의 첫 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 깊은 역사적 배경과 빼어난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함께 간직한 이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느끼기에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오스만 제국 건국 시기에 중요한 거점이었던 예니셰히르는 오늘날에도 항공 인프라를 갖춘 동시에 뛰어난 자연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니셰히르 공항(YEJ)을 중심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튀르키예 전역에서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오가는 항공 교통의 교차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예니셰히르 시계탑은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예니셰히르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야르히사르 마을 (Yarhisar Köyü)은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야르히사르 모스크 (Yarhisar Ulu Camii)의 분수와 전통 목욕탕은 고전 오스만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을 교외에 자리한 야르히사르 폭포 (Yarhisar Şelalesi)는 청량한 물줄기와 함께 숲속 오솔길이 이어져 있어, 피크닉이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귀네제 천국 협곡 (Günece Cennet Kanyonu)은 그 이름처럼 천상의 아름다움을



예니셰히르 시계탑



간직한 곳입니다. 푸르른 초목과 작은 폭포,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져 자연 애호가들에게는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로 손꼽힙니다.

예니셰히르의 역사적 위상은 시난 파샤 복합단지 (Sinan Paşa Külliyesi), 시난 파샤 모스크 (Sinan Paşa Camii), 쿰룩 모스크 (Kumluç Camii) 등 오스만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예니셰히르가 지녔던 문화적·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세마키 생활사 박물관 (Şemaki Evi Müzesi)은 오스만 양식의 저택을 개조해



세마기 생활사 박물관

과거의 생활상을 생생히 재현한 공간입니다. 수제 카펫과 시대별 생활용품, 섬세한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예니세히르는 특히 고추 재배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두꺼운 과육과 풍부한 맛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니세히르 고추는 지역 문화와 생활에도 깊이 녹아 있어, 매년 열리는 예니세히르 고추 축제에서는 농부와 방문객이 한자리에 모여 고추뿐만 아니라 잼, 수제 파스타, 수공예품, 지역 특산요리 등 다양한 풍미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니세히르의 음식 문화는 타르하나 수프, 철판에 구운 전통 보렉, 나무 화덕에



예니세히르 고추

서 갓 구운 빵 등 전통 요리로도 유명합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신선하게 조리된 이들 음식을 바로 구입하여 맛볼 수 있어, 생산자와 바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



야르히샤르 폭포



귀네제 천국 협곡

전통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도시
부르사

예니세히르는 하루 만에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아침에는 야르히샤르 폭포 주변에서 상쾌한 산책을 즐기고, 오후에는 귀네제 천국 협곡에서 트레킹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세마기 생활사 박물관과 오스만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모스크 및 복합단지를 탐방하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귀르수



쿨레 숲속 휴양지

소개

부르사 동쪽, 올루다으 산기슭에 기대 있는
귀르수 (Gürsu) 는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푸
른 숲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추고, 최근 성
장한 이색 관광 시설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관
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유럽의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경연대회' (EDEN, European Destinations of Excellence Award)에서 튜르키예 대표로 3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파크에는 집라인, 대형 그네, 산악 썰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자연 스포츠와 모험을 즐기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및 이벤트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한적한 휴식을 원한다면 물레
숲속 휴양지 (Kule Orman Park Mesire
Alani) 가 제격입니다. 넓은 피크닉 공간과
산책로, 맑은 공기를 갖춘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게미 전망대 (Gemi Seyir Terasi)에서는 귀르수의 최고점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르사 평야의 광활한 전경, 석양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판, 도시 건물 사이로 우뚝 솟은 산맥들은 귀르수의 자연적 매력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아드레날린 파크 시설



아드레날린 파크



에 보여줍니다.

또한 귀르수는 식물학적 발견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멸종 위기종인 현삼속 식물 괴크스으로 쿠이루 치체이 (*Göksığır Kuyruğ Çiçeği*, 학명: *Scrophularia goksuhyrensis*) 는 봄철 산기슭에 특별한 색채를 더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미식

귀르수는 특히 과일 재배로 주목받는 농업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특산물인 데베지 배 (*Deveci pear*) 는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뛰어나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귀르수 농업의 특색을 상징합니다.

이 외에도 복숭아, 자두, 사과 등이 재배되며, 재래시장에서는 신선한 제철 과일뿐 아니라 수제잼, 건조 식품 등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자연의 산물을 통해 계절마다 변화하는 귀르

수 맛과 풍미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즐길 거리

귀르수에서의 하루는 자연과 맞닿은, 간단하지만 풍요로운 체험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아드레날린 파크에서 짜릿한 모험을 즐기고, 쿨레 숲 속 공원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코스가 이상적입니다.

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쿨레 숲 속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철에는 숲 속 산책과 트레킹 코스가 큰 인기를 얻습니다.

또한 광스으로 쿠이루우(*Göksığır Kuyruğu*) 꽃이 피는 시기에 진행되는 식물 탐방 프로그램은 자연 애호가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귀르수 모험을 찾는 여행자에게도, 조용히 숨을 돌리고 싶은 이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평화로운 자연의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울루다으 산: 겨울 관광, 트래킹, 산악 스포츠

울루다으 (Uludağ) 는 부르사뿐 아니라 튀르키예 전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행지 중 하나로,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명산입니다. 겨울에는 새하얀 설원이 펼쳐져 스키 애호가들을 불러들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와 짙은 숲 향기로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맞이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특히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주말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겨울의 울루다으는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로, 스키와 스노보드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1-2개발 지구에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한 다양한 슬로프가 갖춰져 있으며, 주변의 호텔과 카페, 식당에서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거닐거나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서 설경을 바라보며, 저녁에는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즐기는 순간까지, 울루다으의 겨울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깊은 여유와 낭만을 선사합니다.

봄과 여름이 찾아오면 울루다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울루다으 국립공원의 산책로, 캠핑장, 폭포들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완전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쵸반카야 (Çobankaya), 사르알란 (Sarıalan), 소프타보안 폭포 (Softabogān Şelalesi) 등은 트레킹과 캠핑,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맑은 공기와 고요한 숲길, 그리고 울루다으의 토종 식생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미식 특집: 부르사의 맛

부르사 요리는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와 전통 조리법, 그리고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진 풍부한 미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조리 과정과 경험, 그리고 식사 후에도 오래 남는 여운까지, 부르사에서 음식을 맛



울루다으 스키장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이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단연 부르사 케밥(이스켄데르 케밥)입니다. 튀르키예를 넘어 널



리 알려진 이 요리는 현지에서 맛볼 때 비로소 진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장작불에 구운 되네르 고기, 버터에 적신 피데 빵, 상큼한 토마토 소스 그리고 신선한 요거트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피델리 코프테 (pideli köfte), 잔특 (cantık), 타힌리 피데 (tahinli pide) 그리고 호두 로쿰 등 부르사 특유의 전통 요리를 곁들이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레시피와 장인의 정성으로 한층 더 풍성한 부르사의 식탁이 완성됩니다.

부르사 음식 문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가정식 전통에 있습니다. 부르사의 재래시장은 수제 파스타, 정성껏 건조한 타르하나 (tarhana, 곡물과 발효유를 섞어 건조한 발효식품)와 페크메

즈 (pekmez, 포도 혹은 석류 등으로 만든 시럽),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허브 요리들로 가득합니다. 이같은 요리들은 각자 부르사의 풍요로운 농업적 전통과 깊은 문화적 유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켐릭 올리브 절임, 미할리치 치즈, 부르사 복숭아처럼 지명이 붙은 특산품들은 식탁을 한층 풍성하게 채워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로 넘어 부르사를 더 이해하고 연결하게 해주는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사에서의 식사는 마치 이 도시의 삶을 한 상에 담아내는 여정과 같습니다. 객사의 지붕 아래에서 시작해 향긋한 올리브와 함께하는 시골식 브런치, 그리고 부드러운 밤 사탕(케스타네 세케리)으로 마무리되는 저녁까지, 그 한입 한입마다 부르사의 역사와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여관과 전통시장: 코자한, 이펙 한, 바크르즐라르 시장

부르사 시내의 심장에는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한 (Han, 상인 여관) 지구가 있습니다. 이곳의 돌 벽과 나무 창틀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상업 문화와 장인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상인들의 발길과



웁르간드 다리

차 향기가 끊이지 않는 살아 있는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코자 한 (Koza Han)입니다. 1491년에 건축된 이곳은 오스만 제



국 초기,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을 위한 여관이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중앙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다 보면, 그 옛날 비단을 싣고 오던 캐러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여전히 비단 제품과 수공예품 상점이 줄지어 있으며, 조용히 움직이는 직조틀의 리듬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펙 한 (İpek Han)은 이름 (İpek, 비단)처

럼 우아한 정신을 간직한 장소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는 정교한 비단 스카프, 자수 제품, 전통 장식품이 가득하며, 각 상품은 부르사의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던 부르사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또 다른 명소인 바크르즐라로 시장 (Bakırcılar Çarşısı)은 소리로 기억되는 공간입니다. 망치 소리, 장인들의 대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장인정신이 빛은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의 구리 냄비, 커피 포트, 접시 등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친 기술과 정성이 깃든 예술품입니다.

이처럼 부르사의 역사적인 한 지구와 전통 시장은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압축해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상인과 장인, 그리고 수백 년의 이야기가 스며 있는 부르사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귀르수 옛 실크로드

오일랏 온천 시설



실크로드: 부르사 상업의 역사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캐러밴의 길, 그 육로의 끝은 바로 부르사였습니다.

실크로드의 '황금 고리' 중 하나였던 부르사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활발한 생산지이자 장인 정신, 동서 교역의 중심지로 자리했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거리와 골목을 걸어보면 발 아래에서 그 찬란한 역사의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이라 불린 부르사는 오랫동안 비단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동방에서 건너온 생 비단실은 이곳 장인들의 손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의미와 가치가 더해졌습니다. 코자 한 (Kozahan), 이펙 한 (İpek Han), 에미르 한 (Emir Han)과 같은 여관들은 당시 상업의 활력이 넘치는, 비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한의 안뜰에서 끓는 솔, 실을 감는 여성들, 새벽을 여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부르사가 지닌 활기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부르사는 상업의 발전과 함께 장인 정신의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구리세공사, 대장장이, 비단 장인, 안장 제작자 등 수많은 장인들의 손길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생산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수세기 동안 부르사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르사의 여관은 거래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삶의 무대였습니다.

오늘날 실크로드의 흔적은 줄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부르사의 일상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자 한의 비단 스카프, 구리세공 시장의 터키식 커피 포트, 비단 손수건 한 장에는 부르사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부르사는 지금도 옛 상업 중심지의 전통을 지켜가며, 생산하고, 나누고, 경험하는 도시 문화를 미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천 여행: 체키르게, 오일랏, 그리고 부르사의 온천들

부르사의 온천 이야기는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수 세기를 넘은 이야기들은 하맘의 대리석 바닥에 맺힌 수증기나 스파 호텔의 치료수를 타고 전해집니다. 체키르게 (Çekirge)에서 오일랏 (Oylat) 까지, 따뜻한 온천 여행과 함께 몸과 마음을 감싸는 치유의 여정을 떠나 보세요.

부르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온천 지역은 단연 체키르게입니다.

オス만 제국 시대에는 술탄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던 이 온천수는 지금도 그 탁월한 치유 효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터키식 온천 문화에 현대식 스파 시설을 더한 호텔들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웰니스 공간으로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무라디예 (Muradiye) 와 에스키 카풀자 (Eski Kaplıca) 는 아름다운 ос만 건

축미와 함께 온천수의 따뜻한 품속에서 역사 속 한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보석 같은 명소는 이네꼴 (Inegöl) 지역의 보석, 오일랏 온천 (Oylat Kaplıcaları)입니다. 푸른 계곡을 따라 흐르는 온천수는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까지 풀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이곳은 근처의 오일라트 동굴과 폭포와 함께 여행자에게 몸과 마음에 깊은 평온을 선사합니다.

이 밖에도 부르사 전역에는 투մ빌데크 (Tümbüldek), 퀴퀴르틀뤼 (Kükürtlü), 켐릭 (Gemlik) 등 다양한 온천지가 있습니다. 각 온천마다 수온과 미네랄 성분이 달라 류머티즘 완화, 피부 재생 등 저마다의 효능을 자랑하며, 공통적으로 편안하고 느긋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온천을 방문할 때에는 시간이 훌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맡기

고, 수증기 사이로 스며드는 역사의 숨결을 느껴 보세요. 부르사의 온천은 오랜 전통이자, 삶을 깨우는 의식이며, 오늘까지 이어지는 치유의 문화입니다.

페스티벌 및 이벤트: 카라교즈 페스티벌과 부르사 국제 페스티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부르사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싶다면, 축제 기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르사의 풍성한 역사, 예술,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날로, 거리마다 울리는 음악과 광장의 민속춤 속에서 관전자가 아닌 축제의 일원으로서 도시와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르사의 대표적인 축제는 국제 카라교즈 인형극 및 그림자연극 페스티벌입니다. 튀르키예 전통 그림자 연극『카라교즈』의 주인공 '카라교즈'와 '하지바트'가 탄생한 땅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전통 예술과 현대 공연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매년 11월, 국내외 인형극 예술가들이 부르사에 모여 장인의 손

길이 살아 있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르사는 장인의 손짓에 따라 아이들의 음침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의 커다란 무대가 됩니다.

또 다른 주요 축제는 국제 부르사 페스티벌입니다. 6월에 개최되는 이 축제 기간 동안 부르사는 가장 활기를 띠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아, 메리노스 공원에서 부르사 야외 공연장까지 클래식, 재즈, 현대무용, 민속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울르다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자연의 교향곡이 되고, 도시 곳곳의 유적에서는 전통 음악의 박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르사에서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변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의 장입니다.『카라교즈』공연에서 전통에 매혹되거나, 별빛 아래 야외극장에서 라이브 음악을 즐길 때에도, 축제는 일상의 경계를 넘어 삶과 다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르사에서 꼭 해봐야 할 일 10가지

1. 울루다으 산에서 사계절을 느껴 보세요

울루다으는 겨울철 스키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색과 숨결로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경이입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봉우리가, 여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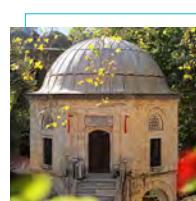


청정한 소나무 숲의 맑은 공기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하늘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집니다.

숲속을 거닐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즐기고, 눈싸움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는 순간, 울루다으에서의 시간은 그 자체로 자연과 하나 되는 여정입니다. 스키장과 트레킹 코스, 캠핑장으로 가득한 이 장대한 산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여행자에게도, 한적한 휴식을 찾는 이들에게도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 줍니다.

2. 역사적인 한 (Han)에서 시간 여행을 해 보세요

부르사 시내의 돌담과 골목 사이에는 수백 년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코자 한(Kozahan), 이펙 한 (İpek Han), 바크르줄라르 시장 (Bakırcılar Çarşısı)



등은 부르사의 가장 역사적인 상업 단지입니다. 한때 실크로드 상인들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곳으로, 지금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장인의 망치질 소리, 햇빛에 반짝이는 타일 바닥, 부드러운 비단 스카프 한 장이 전해주는 감촉,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초대합니다.

3. 골야즈 (Gölyazı)에서 일몰을 감상해 보세요

울루아바트 (Uluabat) 호수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마을, 골야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한 곳입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호수 위로 배를 띄우는 순간의 정적과 저녁노을이 물드는 하늘의 황금빛은 골야즈만의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돌길을 따라 늘어선 그리스풍 전통 가옥, 호숫가에 드리운 플라터너스 그늘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몰을 감상해 보세요. 붉게 물든 하늘이 호수 위로 스며드는 그 순간, 골야즈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시간이 머무는 풍경이 됩니다.



4. 주말르크족

(Cumalıkkızık) 마을에서 오스만 시대로 들어가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말르크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스만 제국 시대로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돌로 포장된 좁은 골목길과 색색의 전통 가옥,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목재 창문들은 수백 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빵집에서 퍼지는 고소한 냄새



와 함께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주말르크족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와 함께 숨 쉬는 체험이 됩니다.

5. 예실 복합단지 (Yeşil Külliyesi)에서 영적인 여정을 경험해 보세요

부르사의 정신은 예실 (Yeşil) 시에 머물



고 있습니다. 예실 영묘 (Yeşil Türbe)의 화려한 청록색 타일과 우아한 첨탑, 그리고 단정한 안뜰에 발을 내딛는 순간, 깊은 내면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스만 시대의 정교한 세공미와 섬세한 디테일은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모스크의 벽과 묘역의 문 앞에 잠시 서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6. 온천에서 휴식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부르사의 온천 여행은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체키르게 (Çekirge)의 역사 깊은 목욕탕과 오일랏 (Oylat)의 치유 온천 등,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부르사의 온천 문화는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부르사의 건강과 웰니스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치유의 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술탄이 된 기분으로 대리석 욕탕에 몸을 담그거나 오일라트의 숲 속 온천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온천수의 온기 속에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7. 카라교즈 그림자 연극을 관람해 보세요

튀르키예의 전통 예술, 그림자 인형극 『카라교즈』 인형극. 두 주인공 '카라교즈'와 '하지 바트'의 익살스러운 대화에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느새 어린 시절의 동심과 전통의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전통 예술의 중심지인 부르사의 카라교즈 박물관은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8. 비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때 동서 문명을 잇던 실크로드의 종착지,

부르사. 이곳에서 비단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부르사의 역사를 염는 실입니다. 오늘날 코자 한 (Kozahan)에서 실크 스카프를 손끝에 스칠 때, 그 감촉은 마치 수세기의 시간을 만지는 듯합니다. 부르사의 수제 비단 직물들은 여전히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 부르사의 맛을 느껴 보기

부르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부르사 캐밥에 끼얹어진 버터의 풍미와 숯불 향이 감도는 피렐리 코프테, 밤 사탕의 부드러운 단맛..각자 이 도시에서 맛의 기록을 남기는 조각들입니다. 작은 식당의 따뜻한 한 접시의 요리, 시장에서 만나는 수제 챙 한병, 부르사의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의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부르사에서 맛보는 모든 음식에는 이 도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 도시에서 축제의 정신을 느끼기

부르사의 연중 열리는 다양한 축제 기간은 거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국제 부르사 페스티벌에서 즐기는 신나는 음악, 카라교즈 페스티벌의 그림자 연극, 주말 르크족 라즈베리 축제에서 현지의 삶에 스며드는 경험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시의 영혼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르사의 정신은 때



로는 거리의 음악 속에, 때로는 그림자 연극 속에, 때로는 장터 한켠에 숨어 있습니다. 부르사에서 축제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거리를 기쁨으로 채우는 박동입니다.

문화를 발견하는 여정



옛 부르사 시청 건물, 오스만가지

시간의 자취를 따라: 오스만 제국 의 첫 수도에서 떠나는 역사 여행

부르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역사의 교차로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첫 수도로서의 위엄과 전통은 도시 곳곳에서 지금도 숨 쉬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역사 탐방 코스는 여관 지구에서 시작해 텁하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코자 한 (Koza Han)에서 실크의 은은한 광택 속에 비단의 역사를 느끼고, 바크르줄라르 시장에서 장인들의 망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끝에서 텁하네 시계탑의 그늘 아래 잠시 숨을 고르면, 도시의 오래된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르사의 여정은 곧 오스만 제국의 시작을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가지(Osmangazi)와 오르한 가지(Orhangazi)의 묘역은 단순한 유적을 넘어 한 제국의 뿌리와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묘역이 자리한 텁하네 언덕은 마르마라 해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 풍경 속에서 부르사의 역사와 위엄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부르사 성벽의 술탄의 문 (Sultan Kapısı)을 지나 세트바쉬 (Setbaşı)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어보세요. 과거의 왕도에서 지금의 도시로 이어지는 이 길은 부르사의 역사 속으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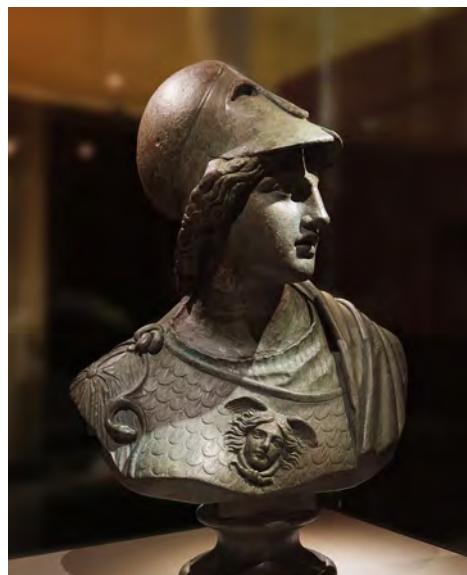
주말르크족, 그리고 다른 크족 (Kızık) 마을들: 돌과 흙, 시간을 초월하는 여행 코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말르크족 (Cumalıkızık) 마을은 부르사 문화 탐방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직접 걸어야만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치형 돌길, 나무 밭코니가 있는 오스만 전통 가옥, 그리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안뜰까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주말르크족과 함께 둘러볼 만한 또 다른 크족 (Kızık) 마을들: 피디예크족 (Fidyekızık), 데일멘리크족 (Değirmenlikızık), 데레크족 (Derekızık)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들입니다. 이 마을들은 오스만 제국 시절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시간은 돌담 사이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조용한 골목 끝 로컬 카페의 차 한 잔



무라디예 쿠란 및 필사본 박물관, 오스만가지



부르사 고고학 박물관, 오스만가지

전통에서 미리로 이어지는 도시
부르사

은 수백 년 이어진 전통과 사람들의 일상을
느끼는 한 모금의 역사가 됩니다.

박물관에서 하는 시간 여행

부르사의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정신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부르사 시립 박물관 (Bursa Kent Müzesi)에서는 부르사가 걸어온 과거의 여정과 오늘날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튀르크 이슬람 유물 박물관 (Türk İslam Eserleri Müzesi)은 섬세한 서예, 세공 예술, 타일

공예 등 오스만 제국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입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던 이즈니크의 이즈니크 박물관 (İznik Müzesi)은 비잔틴 제국의 성스러운 유산과 맞닿은 곳으로, 켜켜이 쌓인 종교와 문화의 역사를 차분히 펼쳐 보여줍니다.

비단에서 그림자까지, 문화의 모든 것

부르사의 문화 탐방은 유적지만이 아니라 삶의 결 속에 녹아든 예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카라교즈 박물관 (Karagöz Müzesi)에서는 전통 그림자극이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카라교즈』의 두 주인공, 하지바트 (Hacivat) 와 카라교즈 (Karagöz)의 재치 있는 대화는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섬세한 유머와 풍자를 전해줍니다.

코자 한 (Koza Han)의 비단을 만지면서 실



이즈니크의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 Adil Can Güven

크로드를 떠올리거나 미시 마을(Misi Köyü)의 예술 공방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하고, 이즈니크 (İznik)의 타일 장인의 작업대 위에서 탄생하는 작품을 지켜보는 순간 서로 다른 문화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부르사의 문화 탐방은 지도 위의 투어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시장 속 향기와 영묘



토파쉬 부르사 아나톨루 자동차 박물관, 이을드름



에블리야 Çelebi 길

의 고요함,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문화를 발견하는 시간, 걸음 하나하나가 더 깊은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도시. 그것이 부르사입니다.

에블리야 Çelebi의 길: 부르사를 지나는 발걸음

부르사를 걸어가다 보면 울려퍼지는 과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위대한 여행 작가 에블리야 Çelebi (Evliya Çelebi)는 1671년, 이스탄불에서 메카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 중 부르사를 지나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그의 명저 세야하트나메 (Seyahatnâme)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수 세기가 흐른 지금, 그의 발자취는 에블리야 Çelebi 문화길 (Evliya Çelebi Kültür Yolu)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 루트는 이스탄불 인근의 얄로바 (Yalova)에서 시작해 이즈니크 (İznik), 부르사 (Bursa), 이네꼴 (İnegöl), 큐타히야



(Kütahya)로 이어지는 약 600km의 여정으로 과거의 순례길을 따라 걷는 문화 탐방로입니다. 이 루트는 자연과 역사 모두에 깊이 빠지는 경험을 제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르사의 문화적 유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르사 구간은 이즈니크 성벽, 울루 모스크 (Ulu Cami), 코자 한 (Koza Han), 무라디예 단지 (Muradiye Külliyesi), 예실 영묘 (Yeşil Türbe), 그리고 토피하네 (Tophane) 언덕까지 이어집니다. 이 길 위의 장소들은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에블리야 첼레비의 시선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은 부르사의 본질을 깊이 있게 전합니다. “부르사는 물로 만들어졌다. 구석구석마다 샘물이 흐른다.”

만약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여행을 꿈꾼다면, 에블리야 첼레비 문화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길 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백 년 전 이야기를 오늘로 되살려 줍니다.

부르사의 열정: 부르사스포르와 스포츠 문화

부르사에서의 문화는 건축물이나 유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르사스포르 경기장

이 도시가 축구와 맷은 깊은 감정적 유대 또한 부르사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1963년에 창설된 지역 축구팀 부르사스포르 (Bursaspor)는 2010년, 마침내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단순한 스포츠 팀을 넘어 도시의 자부심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이 우승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탄생한 첫 챔피언 팀으로서 부르사 시민들에게 강렬한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 날의 부르사는 하나의 거대한 축제 무대가 됩니다. 녹색과 흰색 깃발이 휘날리고 거리마다 응원가가 울려 퍼지며, 뜨거운 열정이 번집니다. 이곳에서 축구는 정체성과 자부심, 소속감을 아우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특히 부르사스포르의 응원단 ‘텍사스 (Tekkas)’는 관중석에 불을 지피는 듯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 열정을 직접 느껴 보고 싶다면, 팀사 아레나 (Timsah Arena)로 향해 보세요. 악어 형상을 본딴 독특한 디자인의 초록색 돔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잊을 수 없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르사를 여행할 때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도시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도시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 트레킹 루트

울루다으 (Uludağ) 의 기슭에 서 정상까지 – 자연과 하나 되는 길

부르사의 가장 알려진 자연 명소는 단연 울루다으 산입니다. 겨울의 모습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봄과 여름철에는 트레킹과 자연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거듭납니다. 사르알란 (Sarialan) 숲에서 시작해 초반카야 (Çobankaya) 와 키라즈리야일라 (Kirazlıyayla) 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는 걸음마다 전나무 숲의 향기가 스며드는 상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른 아침, 등산객들은 이슬 맷힌 산길을 따라 걸으며 새소리와 함께 아침 햇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뀌는 식생은 마음까지 정화시켜 줍니다. 캠핑 구역, 전망대, 작은 폭포 등으로 가득한 이 루트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연못 그늘 속에서: 켈레스와 하르만족 투어

널리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자연의 경이를 간직한 또 다른 하이킹 코스는 켈레스 (Keles) 시의 코자야일라 (Kocayayla) - 괴외즈 (Gököz) - 바라클르 (Baraklı) 삼각지대입니다. 이 고원들 사이의 길은 특히 여름

철에 적합하며 바람에 훌날리는 풀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연못가를 따라 걷거나, 때로 멈춰서 물에 비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르만족 시에 위치한 카라자 (Karaca) 연못 주변은 평화로운 산책에 안성맞춤입니다. 생태 관광 정책 아래에 보호되는 이 지역은 환경을 배려하는 탐방의 시간을 제공하며,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협곡과 폭포: 자연의 짜릿한 얼굴

자연을 더욱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르하넬리 시의 사다으 협곡 (Orhaneli Sadağı Kanyonu) 과 무스타파케말파샤 시의 수으추트 폭포 (Mustafakemalpaşa Suuçtu Selalesi) 는 꼭 방문해 보셔야 할 코스입니다.

사다으 협곡은 높은 암벽 사이로 이어지는 오솔길, 크고 작은 폭포들, 그리고 터널 같은 좁은 통로들로 짜릿함과 고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이 협곡이 주는 서늘함은 자연이 건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수우츠투 폭포 주변의 넓은 공간은 가족과 함께 소풍과 하이킹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폭포의 굉음을 뒤로 하고 숲 속을 걷는 경험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줍니다.



전통 마을의 고요한 오솔길

주말르크족 마을에서 시작해 제이니레르 (Zeyniler), 피디예크족 (Fidyekizik), 데레크족 (Derekizik) 마을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는 자연과 역사의 흔적을 함께 담아낸 특별한 루트입니다. 이 길들은 단순히 숲속을 걷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자취를 따라 걷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을 화덕에서 구운 신선한 빵냄새와 함께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 가세요.

닐뤼페르 (Nilüfer) 시의 미시야 길 (Mysia yolları)은 지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계된 등산 코스입니다. 잘 정비된 길과 지도, 마을

을 관통하는 코스 등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트레킹이 가능해 초보부터 숙련된 등산객까지 누구에게나 맞는 루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과 봄: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등산을 즐기기에 가장 계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봄과 가을입니다. 환절기에는 꽃봉오리가 터지고,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흙날리며 자연이 하나의 무대로 거듭납니다. 부르사의 숲, 연못, 고원, 협곡은 그 공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선보입니다.



미식 투어 및 추천 루트



부르사 케밥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맛의 이야기

부르사
부르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

부르사의 음식 문화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추억, 그리고 식탁 위의 유산입니다. 이 풍부한 미식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갈 곳은 카이한 시장 (Kayhan Çarşısı)입니다. 특히 잔특 (cantık, 피자와 같이 동그랗게 구운 빵)의 터전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갓 구워낸 잔특의 바삭한 첫 입은 입안에 어딘지 모를 추억을 남깁니다.

도심에 위치한 투즈 시장 (Tuz Pazarı)은 다양한 치즈부터 봄 채소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산물로 가득 합니다. 이곳에서 동네 상인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는 음식은 식사를 넘어 곧 공동체를 잇는 매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윽고 주말크족 마을 (Cumalıkızık Köyü)로 향해 돌길을 거닐다 보면 만나는 괴즐레메(gözleme, 속재료를 넣고 구운 페이스트리) 노점과 수제잼, 마을 화덕에서 풍겨져 오는 빵 냄새 등이 부르사 음식 문화의 깊은 뿌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주말크족 비즐라마(Bazlama, 튜르키예식 플랫브레드)과 가정에서 만든 타르하나(tarhana, 밀가루와 발효유를 섞어 만드는 식재료) 수프는 간결하고도 강렬한 풍미로 지역 음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해변가의 무단야 (Mudanya) 와 티릴리예(Tirilye) 마을은 풍부한 해산물로 부르사 음식 문화의 색다르고 산뜻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갓 잡아 올린 생선, 올리브 오일로 만든 다양한 전채 요리, 그리고 크레타식 허브 요리가 해안 마을의 식탁을 장식합니다. 특히 티릴리예의 올리브 절임은 소박한 아침 식탁



볶육오르한 가부르마



타한리 피데



후두 로풀

을 고급스럽게 채워 줍니다.

고원에서 식탁까지: 전통의 맛

부르사의 산악 지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 특별한 음식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켈레스 (Keles), 오르하넬리 (Orhaneli), 뷔육 오르한 (Büyükorhan) 과 같은 고원 마을의 고기 요리는 장작불로 지긋이 구워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특히 뷔육오르한의 카부르마 (Kavurma, 소 또는 양고기 소테)와 산간 지역의 밀 요리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요리 문화를 보여줍니다.



나물 요리 (Tatlı Sarmaşık)

시골에서 열리는 마을 장터는 현지 주민들과 교류

하고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켈레스 체리, 하르만자 쿠프테, 무스타파케말파샤 디저트, 규르수 배, 예니세히르 고추...이들은 식재료를 넘어 각자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네꼴은 미식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발상지의 이름을 딴 이네꼴 쿠프테 (İnegöl Köfte)는 단순한 조리법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물소 요거트, 지역에서 기른 허브와 전통 치즈를 곁들인 미트볼은 미식 여행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부르사의 맛을 더 느끼고 싶다면 닐뤼페르 (Nilüfer) 의 포도밭이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야즈 (Gölyazı) 와 미시 (Misi) 마을 주변의 포도 수확철에 맞춰 방문하면 잊지 못할 자연 그대로의 맛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식 루트 추천

1. 아침: 주말르크족의 전통 터키식 아침식사



2. 점심: 카이한 (Kayhan)의 잔특, 투즈 시장 (Tuz Pazarı)에서 장보기



3. 저녁: 무단야 해변의 신선한 생선 요리



4. 다음 날: 이네꼴 쿠프테와 켈레스 지역 생산자 시장 방문



5. 마무리: 골야즈에서 갑상하는 석양



도심에서 즐기는 가족 친화적 관광지

부르사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풀르카야 놀이공원 (Kaplıkaya Cazibe Merkezi)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아쿠아리움, 자연 공원, 피크닉 공간 등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을 알아갑니다.

도심에 위치한 토파쉬 아나돌루 자동차 박물관 (TOFAŞ Anadolu Arabaları Müzesi)은 자동차에 관심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 마차부터 자동차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체험형 전시로 전연령의 방문객에게 적합합니다.

주말르크족 마을은 튀르키예 시골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가족 여행지입니다. 돌길 사이를 거닐며 역사를 엿보고, 정겨운 시골 분위기 속에서 함께 괴즐레메 (Gözleme, 속재료가 든 페이스트리)를 맛보세요. 아이들은 목조 가옥 사이를 거닐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리노스 공원과 그 안의 메리노스 에너지 박물관 (Merinos Enerji Müzesi), 이주 역사 박물관 (Göç Tarihi Müzesi)는 푸르른



도부르자 데이르멘 공원과 사회 시설

녹지와 문화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야외 놀이 공간에서 뛰어노는 동안 어른들은 전시를 감상하거나 나무 그늘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가족과 휴식을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자 한다면, 울루다으스는 계절마다 고유한 경험들을 선사합니다.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고, 여름에는 케이블카의 경치와 함께 고산 지



귀르수 아드레날린 공원

대의 시원함을 느껴 보세요. 특히 호텔 구역의 뒤쪽 루트에는 아이들을 위한 쉽고 재미 있는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숙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도 안전하고 평온하게 산을 탐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우츠투 폭포 (Suuçtu Şelalesi, 무스타파 케말파샤 시)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숲 속 트레킹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폭포 주변의 피크닉 공간들과 걷기 쉬운 평지 산책로는 자연 속 휴식으로 하루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곳 특유의 평온함과 아름다운 경치는 어른과 아이 모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수우츠투 폭포



풀야즈 보트 투어



야렌 (Yaren) 황새, 에스키아라아야즈 카라자베이



카라자베이 롱고즈 숲

카라자베이 시의 롱고즈 숲 (Longoz Ormanları)은 훌륭한 자연 교육의 기회입니다. 이곳은 탐조 활동, 자연 속 트레킹과 짧은 보트 여행들로 생태학적 지식을 쌓고자 하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코스입니다. 또한 에스키카라아야치 (Eskikaraağaç)의 야렌 황새 관찰 구역 (Yaren Leylek Gözleme Alanı)은 생태 교육은 물론, 철새와 인간의 유대를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면서도 감명 깊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귀르수 아드레날린 파크 (Gürsu Adrenalin Park)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게 추천하는 선택지입니다. 집라인, 잔디 썰매 그리고 숲 속 모험 코스 등은 안전한 장비들로 자연 속 즐거운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공원 주변의 유원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용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즈니크 호수 기슭에서 즐기는 피크닉, 자전거 여행, 작은 보트 체험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차분하고 여유로운 하루의 마무리에 안성맞춤입니다.

부르사 교통 및 시내 여행 가이드

부르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교통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내 교통 수단

항공편, 육로, 또는 이스탄불을 경유한 해상 교통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부르사로 오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도착하신 이후에는 철도 시스템, 버스 노선, 케이블카, 미니버스 (돌무쉬)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부르사 교통 수단

1. 육로

부르사는 이스탄불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속 도로가 이어져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부르사 버스터미널은 시내 중심에서 10km 떨어져 있으며, 튜르키예 전국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시내 중심으로 이동할 때는 부를라쉬(BURULAS) 소속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항공로

새롭게 단장한 예니세히르 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



항에서 시내 중심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택시와 셔틀 차

량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이동 시간은 약 45~60분 정도입니다.

3. 해로

이스탄불에서 온다면 해로를 이용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예니카프 (Yenikapı) 혹은 펜딕 (Pendik)에서 IDO 와 BUDO 페리를 타고 무단야에 도착한 후, 미니버스나 버스를 이용해 시내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루트는 특히 여름철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 수단

1. 버스 노선

버스는 부르사 시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중교통입니다. BURULAS 소속 버스들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합니다. burulas.com.tr에서 운행 시간과 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철도 시스템

BursaRay는 부르사의 동서를 연결하는 시내 교통의 핵심입니다. 지하철 노선을 통해



닐뤼페르 (Nilüfer)와 이올드름 (Yıldırım) 방향으로 빠르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합니

다. 역사적인 시내 중심지를 탐험하고 싶다면, 오스만가지 역에서 환승하여 T1트램 노선을 이용해 울루 모스크-동상 지역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3. 미니버스 / 돌무쉬 노선



미니버스와 돌무쉬는 특히 주거 지역과 일 부 농촌 지역을 오가는 데 널리 이용됩니다. 무단야 (Mudanya), 티릴리예(Tirilye), 골 야즈 (Gölyazı) 등 도심 외 관광지로 이동 하실 때 미니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울루다으 산으로 가는 교통편

부르사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인 울루다으 산으로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케이블카:** 9km 구간의 케이블카는 숨막히는 도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여행을 제공합니다.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는 테페르뤼치(Teferrüç) 역에서 탈 수 있습니다.
- **미니버스:** 텁하네에서 울루다으 정상 까지 운행하는 직행 미니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 **개인 차량:** 32km의 산길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직접 운전하며 여유로운 산악 드라이브를 즐기시기에도 좋습니다.

5. 티켓 발권 및 교통카드 사용

부르사 시내 교통에는 부르사카르 (Bur-sakart) 가 사용됩니다. 이 교통카드는 모든 철도 시스템, 시내버스, 그리고 일부 미니버스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카드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또는 지정된 판매처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여행 시 유의사항

- 부르사는 면적이 넓은 도시로, 지역 간 이동 거리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즈니크 (İznik) 까지는 시내 중심에서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휴가철에는 울루다으로 가는 길이 매우 혼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대 안을 준비해 보다 여유로운 이동을 권장드립니다.
- 이동 전 교통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BURULA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 하시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사의 숙박 시설

역사적인 정취의 중심, 자연 속, 또는 바닷가에서의 휴식...

부르사에서의 숙박은 머무는 지역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르사를 제대로 탐험하려면 숙소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품고 있어, 어디에 머무는 가에 따라 전혀 다른 부르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야기를 선택해 머물 곳을 결정해 보세요.



역사의 중심에서 시간 여행을

부르사의 정취를 가장 깊이 느끼고 싶다면, 오스만가지 (Osmangazi) 와 이을드름 (Yıldırım) 지역이 가장 적합합니다. 올루 모스크의 둑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거나 걸어서 예실 복합단지 (Yeşil Külliye)를 탐방하고, 이른 아침에 주말르크족의 돌길을 거닐고 싶다면 이 두 지역의 숙소가 제격입니다.

전통 건물을 개조한 부티크 호텔들은 역사의 품격과 현대적인 시설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편안하고도 세련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스만 시대의 안뜰에서 따뜻한 아침식사를 즐기며 하루의 여행 계획을 세워 보

세요.

전통 온천 속의 편안함

편안함과 치유를 동시에 원한다면, 수백 년 전통을 간직한 체키르게 (Çekirge) 지역이 제격입니다. 오스만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온천과 목욕탕, 그리고 현대적인 스파 시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고급 스파 리조트부터 전통이 깊은 가족 경영 숙소까지, 역사와 치유가 공존하는 이곳은 특히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과 함께하는 현대식 숙박

부르사의 현대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닐뤼페르 (Nilüfer) 와 괴뤼클레 (Görükle) 지역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세련된 호텔과 트렌디한 카페,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이곳은 도시의 활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이 편리해 도시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닐뤼페르에는 체인 호텔과 레지던스 형 숙소가 다양해 비즈니스 출장이나 장기체류 여행자에게 적합합니다. 저녁 무렵 숙소를 나서면,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공원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울루다으에서 즐기는 사계절

부르사의 최고점인 울루다으 산은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산속 호텔의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고원 바람을 맞으며 숲 속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키 호텔부터 산장, 부티크 호텔과 숲 속 캠핑장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갖춘 울루다으는 사계절 모두 자연과 연결되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닷가에서 누리는 평온한 여정

무단야 (Mudanya), 티릴리예 (Tirilye), 그리고 켐릭 (Gemlik). 부르사에서 바다와 맞닿은 세 해안 마을은 각자의 매력을 품고 있

티릴리예 전망테라스



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뜨며 해질 무렵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싶다면 이곳들로 발걸음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야에서는 역사적 돌집을 개조한 호텔이나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부티크 호텔과 해변을 따라 자리한 현대적인 숙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티릴리예에서는 그리스 건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안뜰에서 아침 식사를 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며 과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켐릭은 넓은 해변과 차분한 분위기, 지역 특유의 음식들



로 여행자에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며칠뿐이라도 도시의 소음을 잊고, 파도 소리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시간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적한 휴식을 원한다면, 부르사의 산악 지역들이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켈레스 (Keles), 하르만족 (Harmancık), 오르하넬리 (Orhaneli), 뷔육 오르한 (Büyükkorhan) 등의 지역에서는 작은 민박집과 고원 마을의 전통가옥, 자연 친화적인 숙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철에는 호수 주변의 캠핑장이 조용한 자연 속 휴가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인파를 피해 더 차분한 경험을 원하는 방문객들에게는 바라클로 (Baraklı) 와 괴쿄즈 (Gököz) 호수 주변, 코자야일라 (Kocayayla) 와 하르만족 (Harmancık)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아침 산책을 즐기거나 저녁 무렵에 별들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근처 마을에서 신선한 지역 특산 품을 찾아보는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르사에서의 쇼핑: 어디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부르사에서의 쇼핑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도시의 문화와 마주하는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이곳에서 쇼핑은 전통과 만나는 것, 장인의 손길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곁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비단의 감촉에서, 때로는 수공예 비누 속에서 장인의 정성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라르 지구와 그랜드 바자르 : 장인 정신의 중심지

부르사 역사의 중심에 자리한 한라르 지구 (Hanlar Bölgesi) 와 그랜드 바자르 (Kapalı Çarşı) 는 수세기 동안 이 도시의 상업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오스만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오늘날에도 활기 넘치는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오래된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비단과 직물, 장신구, 수공예품으로 가득한 한(客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인들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정교한 기술과 전통 제조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코자 한 (Koza Han) 에서는 정성스럽게 진열된 비단 솔과 스카프를 감상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이페크 한 (İpek Han) 에서는 직물을 미터 단위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크르즐라르 시장 (Bakırçilar



코자 한

Çarşısı) 은 주방용품, 장식품, 기념품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쇼핑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소입니다.

모던한 쇼핑 센터: 도시에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 공간

전통 시장의 매력과 더불어, 부르사 곳곳에 자리한 현대식 쇼핑 센터들은 도시에 한층 세련된 감각을 더해줍니다. 국내외 브랜드가 입점한 백화점과 몰들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영화관·푸드코트·이벤트홀을 갖춘 복합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자 한

올루 시장

특히 닐뤼페르 (Nilüfer), 오스만가지 (Os-mangazi), 괴뤼클레 (Görükle) 지역은 부르사에서 가장 활기찬 쇼핑 문화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공간들에서 쇼핑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금의 부르사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수공예와 기념품: 손끝에서 태어나는 특별한 추억

부르사에서의 추억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곧장 장인의 작업실로 향해 보세요. 이곳의 기념품은 공장이 아닌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단 직물, 도자기 접시, 구리 제즈베 (cezve, 터키식 커피 포트), 정교한 칼 등 각각의 작품은 실



부르사 그랜드 바자르

지인과 교류하며 부르사 요리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좌판 위에는 제철 채소와 신선한 자연산 허브, 수제잼과 치즈, 그리고 타르하나 (tarhana, 전통 수프 가루) 등의 식재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와 활기찬 웃음소리를 들으며 골목을 걷다 보면, 장바구니 속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대화와 미소, 따뜻한 정까지 함께 담기게 됩니다.

지역 특산물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부르사에서 현지의 맛과 향 혹은 수제 기념품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곳은 마을 여성 합동조합 판매점, 시립 지역 특산물 가게, 그리고 마을 장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 비누, 잼, 말린 허브와 같은 제품들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르크족 (Cumalıkızık), 티릴리예 (Tirilye), 미시 (Misi), 골야즈 (Gölyazı) 와 같은 마을에서 열리는 시장에서는 제품만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진솔함, 전통 생산 방식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러한 쇼핑 경험은 도시의 문화와 연결되는 가장 빠르면서도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무르베이 비단 생산 및 디자인 센터



용적이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로컬 제품들에는 부르사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부르사의 기념품은 단순한 여행의 기념을 넘어, 정취를 간직한 예술품이 되어 오래도록 추억 속에 남습니다.

재래시장: 거리에서 만나는 부르사의 숨결

재래시장은 부르사의 가장 진솔하고 생동감 있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매일 곳곳에서 열리는 시장들은 도시의 특색을 느끼고, 현

건강과 온천 관광

건강과 온천 관광: 부르사 치유의 샘

역사적으로 부르사는 치유의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온천의 도시로 명성을 이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온천 관광지의 핵심 거점입니다. 맑고 따뜻한 부르사의 온천수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마음 까지 편안하게 치유해 줍니다.

체키르게 온천: 역사적인 치유 온천

부르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높은 온천 지구인 체키르게 (Çekirge) 의 물은 수백년 동안 치유수로 쓰였습니다. 오스만 시대의 술탄들도 즐겨 찾았던 에스키 카플라자 (Eskikaplaca) 와 예니 카플라자 (Yenikaplaca) 는 지금도 굳건히 서서 방문객들에게 역사 깊은 온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유황 온천인 퀴퀴르틀뤼 온천 (Kükürtlü Kaplıcası) 은 특히 피부질환과 관절염에 탁월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맘 (Hamam, 터키식 사우나) 과 현대적

인 온천 호텔이 공존하는 체키르게는 전통 온천 문화를 체험하고 싶을 때에도, 고급 스파를 즐기기에도 알맞습니다.

오일랏 온천: 자연 속에서의 치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한가운데서 온천을 즐기고 싶다면 오일랏 (Oylat) 온천이 제격입니다. 이네골 (İnegöl) 지역의 소나무 숲 속에 자리한 이 온천은 따뜻한 치유수와 평화로운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류머티즘 질환과 근육통 완화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오일라트의 온천수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완벽한 쉼터가 되어 줍니다.

또한, 이곳은 단순히 온천욕만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숲속 산책, 캠핑, 하이킹과 함께 자연의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툼불덱 온천: 평화와 치유가 함께하는 곳

무스타파케말파샤 시에 자리한 툼불덱 (Tümbüldeğ) 온천은 번잡함을 피해 자연 속에서 온천욕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일랏 온천

다. 이 지역의 온천수는 피부 질환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전해지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짧은 방문으로도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온천 호텔과 스파 센터: 현대와 전통의 조화

부르사는 역사적인 온천과 온천 호텔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은 전통의 매력과 현대적인 편리함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체키르게 (Çekirge) 지역에 위치한 고급 온천 호텔에서는 최신식 시설과 결합한 정



통 하맘 문화를, 오일랏 (Oylat) 와 무스타파케말파샤 (Mustafakemalpaşa) 지역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 시설들은 온천뿐만 아니라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피부 관리와 같은 고급 스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따뜻한 온천수로 근육이 완되는 동안, 신비로운 하맘의 분위기는 사와 현대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부르사의 웰니스 관광

부르사는 온천 관광뿐 아니라 최신식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입니다. 시내의 병원들은 정형외과, 물리치료 센터, 시험관 시술, 성형외과, 안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로 세계 각국의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부르사는 건강/웰니스 관광의 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르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팁 10가지

1 도시 간 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율루다으 산기슭에서 이즈니크 호수까지, 무단야 해안에서 카라자베이 습지까지 널리 펼쳐진 부르사는 상당히 넓은 도시입니다.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때 소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교통 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BURULAS 버스, 지하철, 페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버스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차량을 렌트하는 편이 시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특히 율루다으나 이즈니크와 같이 도심에서 면장소에 갈 경우 되도록 이른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중교통의 필수품-부르사카트 (Burskart)를 준비하세요

도심 이동 시에는 지하철 (BursaRay), 버스와 미니버스가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 부르사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교통카 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시내 중심의 자동판매기나 일부 정류장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 충전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시내 중심에서 율루다으 산까지 케이블 카를 이용해 보세요 (단, 강풍에는 주의 하세요)

율루다으 정상까지 오르는 케이블카 노선은 부르사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나 악천후로 인해 운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운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4 주말르크족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 역사적인 마을은 돌길과 전통 가옥뿐인 마을이 아니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방문하여 터키식 전통 아침 식사를 즐긴 뒤, 마을 장인과 주민들의 좌판을 둘러보세요.

5 한(Han)과 시장은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코자 한에서 차를 마신 뒤, 바크르줄라르 시장 (Bakırçilar Çarşısı)에서 수제 공예품을 둘러보고 그랜드 바자르 (Kapalıçarşı)에서 비단 솔을 만져 보세요. 이곳들은 단순한 쇼핑 센터가 아닌, 오늘날까지 이어



지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6 다양한 부르사 요리를 맛보세요

부르사 케밥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부르사의 식문화는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델리 쾠프테 (pideli köfte), 호두 로쿰, 밤 사탕 (kestane şekerî), 우유 헬바 (süt helvası) 와 수제 파스타 (eriste) 등 지역별 진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마을의 빵집에서 부르사의 진정한 맛을 만나 보세요.

7 유적지의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울루 모스크, 예실 영묘 (Yeşil Türbe), 에미르 술탄 모스크 (Emir Sultan Camii), 톱하네 시계탑 (Tophane saat kulesi) 과 같은 건물들은 야간 조명으로 마치 무대에 오른 듯한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몰 시간은 세트바쉬 (Setbaşı) -톱하네 (Tophane) 구간을 걸으며 부르사의 신비로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8 자연은 울루다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울루다으 산은 겨울 관광과 하이킹, 캠핑장,



여름철 피서지로도 유명한 부르사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야즈 (Gölyazı)에서는 일몰을, 수으추트 폭포 (Suuçtu Şelalesi)에서는 시원함을, 카라자베이 습지 (Karakabey Longozu)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르사의 자연은 사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풍부한 도시 박물관을 놓치지 마세요

부르사 시립 박물관 (Bursa Kent Müzesi), TOFAŞ 아나돌루 자동차 박물관 (TOFAŞ Anadolu Arabaları Müzesi), 아주 역사 박물관 (Göç Tarihi Müzesi), 에너지 박물관 (Enerji Müzesi) 과 같이 다양한 박물관들은 부르사의 풍성한 문화 생활을 제공합니다. 공휴일에는 많은 박물관이 입장료 할인 혹은 무료 입장료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월요일에 휴관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10 서두르지 마세요, 부르사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부르사는 빠르게 소비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차 한잔마다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한 (Han)에서 시간을 음미하고, 비단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 산 속 마을의 잼을 음미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일정표에 적히지 않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 보너스 팁:

만약 방문 시기가 축제 기간과 겹친다면 그 야말로 행운입니다. 국제 부르사 축제(6~7월), 카라교즈 그림자 연극 행사(12월), 황새 축제(4~6월) 등 외에도 지역 마을 장터 등은 도시의 분위기를 보다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내 자매 도시

- 데니즐리
- 카르스
- 아마스야
- 반
- 큐타히야
- 바이부르트

- 무쉬
- 비틀리스
- 안타키야 (핫타이)
- 빌레지크
- 니으데
- 아르다한

- 리제
- 아크프나르(크로셰히르)
- 투르할 (토카트)
- 아르파차이 (카르스)
- 닉사르 (토카트)
- 아으르

국제 자매 도시

- 독일 다름슈타트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 핀란드 오울루
- 튀니지 카이로완
- 북키프로스 레프코샤
- 중국 안산
- 북마케도니아 비톨라 /
마나스티르
- 몰도바 체아드르룬가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 알제리 마스카라

- 독일 쿨름바흐
-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 불가리아 플레벤
- 알바니아 티라나
- 슬로바키아 코시체
- 우크라이나 빈니차
- 우크라이나 바흐치사
라이
- 코소보 프리슈티나
- 벨라루스 모길료프
- 팔레스타인 헤브론



- 불가리아 벨리코 타르
노보
- 세르비아 노비파자르
- 중국 닝보
- 세르비아 노비파자르
- 중국 닝보

국제기구 회원

- 국제박물관협의회
 - 아시아·태평양 과학기술센터 네트워크
 - 유럽 과학센터 및 박물관 네트워크
 - 유럽 동물원·수족관 협회
 - 역사도시연맹
 -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건강도시 네
트워크
 - 튀르키예 세계 지방정부 연합
- 세계유산도시기구
 - 국제 농업도시 협회
 - 유럽 박물관 기구 네트워크
 - 유럽상 (유럽 의회상) 수상 도시 협회
 - 유럽 역사 온천 도시 협회





visitbursa.org



본 출판물은 빌레지크 개발청이 지원한 "부르사 도시 안내서 제작 교육 컨설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부르사 문화관광 진흥 연합회에 있으며, 이는 부르사 에스키셰히르 빌레지크 개발청 또는 산업기술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www.bursatanitim.gov.tr

본 관광안내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튜르키예-아제르바이잔어과 이서정, 박연주 학생이 터키어-한국어 번역을 담당하였습니다.